

김 총리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이내’로 통일해달라”

[칼럼] 요미우리의 특종에 한국 언론 새됐다

“지역마다 달라 국민께 혼선…지자체에 단일화 논의 요청”

“확진자 계속 늘면 비수도권도 오후 6시 이후 모임 제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현재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인 상황에서 비수도권 경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서 국민들께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가 논의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후에는 모임 인원을 추가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총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그런 비상한 각오로 수도권에서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비수도권에서도 단계를 상향했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 앞에서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줘야만 고통의 터널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당분간은 제가 계속해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대본 부장으로서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도 소관 분야의 방역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확산세 차단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수도권과 광주·대전·충남 등에서는 최근 진단검사 양성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며 “정부에서 인력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을 감안하면 전국적인 방역 강화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내일부터 주말이 시작



▲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

된다. 수도권에서는 범죄, 예배, 미사 등 정규 종교행사가 비대면으로 전환된다”면서 “국민적 우려를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에 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는 지금,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는 부디 자제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해당 교회를 찾아뵙고 간곡히 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협조 요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주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찾아주기 바람, 질병청에서는 백신접종 예약 시스템 혼선에도 불구하고 점중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임을 국민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언론 요미우리가 특종을 보도했다. 동시에 한국 언론은 새 됐다.
7월 19일자로 요미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와 23일 도쿄 모토야카사카의 영빈관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려면 가장 먼저 한일 양국 정부의 실무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
양국 정부가 합의해야만 날짜와 장소가 나오는데 청와대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뒤집어 말하자면 청와대는 이미 일본 정부와 정상회담을 약속하고도 국내 언론에는 결정을 못 내렸다고 거짓말했거나 요미우리가 확정되지 않은 회담을 임의적 판단을 확정 난 사실처럼 오보를 낸 것 둘 중 하나다.

이렇게 좀처럼 가만 누구 말이 거짓인지 드러나게 되어있다. 만약 요미우리가 오보를 냈다면 일본 정부의 묵인내지는 밀약에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바보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미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의 자위발언으로 국제사회에서 돌이킬 수 없는 망신살을 산 상태였다.

통상 약속이라는 게 친구 사이에도 밥 한번 먹자하면 선약이 있는지 일정을 봐야하는데 일국의 대통령을 초청하는데 불과 4일 앞두고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결례가 아니라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다.

여기서 앞뒤가 안 맞는게 청와대의 입장표명이다. 일본 정부와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진작에 국민들이 공분하기 전에 발표했어야 맞는 것이며 발표를 미룰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을텐데 요미우리의 발표가 앞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그렇다면, 일본 언론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아무 협의 없이 “너는 보나 마나 부르면 냐다 달려 올거야”라는 안하무인의 보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국의 대사관 총괄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위운운하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덧붙여서 경질이 예상된다는 내용과 함께 야단쳤으니 조용히 나오는 것과 진배없다.

아들이 집에 온 손님한테 손가락으로 냐 먹으라고 조롱했을 때 애비란 작자가 야단 칠테니 냐야하자면 한통속이 아니고 무엇일까. 이라는 동안 청와대는 한국 언론의 입을 막았을까. 아니면 요미우리 특종에 한국 언론이 물먹은 것일까. 누굴 호구로 알아도 분수가 있는 것이다.

이미 위안부, 강제징용, 지소미아, 반도체 수출규제에 독도영유권, 방사능 오염수 유출 등 산적한 한, 일간의 숙제를 어느 날 갑자기 불러들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림픽 개막식 날 뭘 하자는 것인가. IOC는 이번 올림픽으로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내부적인 사정이라 있었지만 한국 선수단의 현수막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철거하게 하고 정적 정치적 수준을 넘어 한때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상징, 욕일 기는 입장이 가능하다는 허가방점을 고수했다. 욕일기, 전범국가로서 절대 두 번

다시 꺼내지도 말아야할 반성의 상징이다. 그러함에도 전 세계 스포츠인 들을 초대해 놓고 그 자리에서 흔들렸다가? 한때 중국과 동남 아시아 일대를 제패하며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까지 공격했던 추억이 그리운 것일까. 일장기를 앞세우고 총칼을 휘둘렀던 군사대국의 잠재된 침략근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왜 물어두었던 아픔들을 되새김질하게 하는 것일까. 올림픽은 스포츠경기 개최가 근본목적이다.

곳곳에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환경을 눈감고 세균들이 우글대는 집에 손님을 초대하고서도 부끄러워할 줄도, 미안한 줄도, 쪽팔리는 줄도 모르는 미개한 민족이다.

반대로 대한민국이 일본영토를 건너가 지금의 여중생이나 여고생 정도의 연령대 20만 명 정도를 무차별 잡아가 하루에도 수 십명의 군인이나 집단으로 성폭행하며 수년간이나 끌고 다녔다면, 그러다 증거인멸을 위해 모조리 사살했다면, 힘없는 나라백성이라는 이유로 탄광에 끌려가 모진 노동에 목숨을 잃게 했다던, 문화적 약탈은 물론이고 온갖 극악무도한 잔인함으로 점철된 날들이 불과 100년도 안된 일이라면 그대로 굴욕적 외교에 일본이 부른다고 쫓아가야 할 일인가.

그 때 불행한 민족의 현실 대신 호의호식하며 지금도 기쁘진 배를 두들기는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시대라면 문제의 핵심은 아둔하고 무식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굴 탓하라 나라를 열 번 빼앗겨도 그러려니 하는 안일한 마음이 문제다. 어쨌거나 19일 오전 한국 언론은 일제치 일본요미우리의 보도를 인용하여 이른바 특종을 반복하는 앵무새가 됐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청와대 기자들에게 엠바고를 걸고 한, 일간의 외교적 실의를 우선시 했다던 박수채야할까. 아니면 한국 정부가 지켜본다는 것처럼 정말 몰랐고, 일본정부의 초대를 학수고대 기다렸고, 일본정부의 정식 초대도 아닌 요미우리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 이는 한국 정부에 대한 단순한 기망이 아니라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질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일본 정부가 대변인이나 외교부 채널이나 대사관이 없어서 직접 못하고 자국의 언론을 통해서 정상회담의 합의를 알리는 것인가. 어떠한 각도로 봐도 완전 개 무시하는 처사다.

백번 양보하여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의 뜻을 대변했다고 치자, 직접 초대한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 장소나 시간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하는 것을 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모든 선수들을 귀국시키고 대 일본 경고메시지를 날려야 한다. 전 세계에 지구촌 인류에게 전범국가의 오만함과 손님에 대한 예의가 어떤 수준인지를 알려야 한다.

아직도 조센징, 빠가야로 소리를 들으며 선수촌에서 굴욕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데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덕담/김근식

‘놀이 뭐하니?’-톱10귀 콘서트’ 보컬 축제 한마당! 최고12.3%!

MBC ‘놀이 뭐하니?’ - 톱10귀 콘서트’ 톱10귀 유아호가 탄생시킨 남성 보컬 그룹 MSG워너비가 소규모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는 눈물과 감동의 피날레 무대로 4개월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MSG워너비는 단채 곡 ‘난 너를 사랑해’ 피날레 무대를 끝으로 1집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레전드 여성 보컬그룹 비마마와 역주행 신화의 SG워너비가 출격해 보컬 대축제를 선사한 ‘톱10귀 콘서트’는 최고 시청률 12.3%까지 치솟으며 더할 나위 없는 해피엔딩을 맞았다.

17일 방송된 MBC ‘놀이 뭐하니?’(연출 김태호, 유혜진, 김윤정, 왕종석, 작가 최혜정)에서는 MSG워너비와 함께 하는 ‘톱10귀 콘서트’와 MSG워너비의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졌다.

18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놀이 뭐하니?’는 수도권 기준 10.3%의 시청률로 토요일 예능 프로그램 1위를 기록했다.

광고 관계자들의 주요 지표이자 채널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2049 시청률에서는 수도권 기준 6.5%를 기록해 토요일 전체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다.

최고의 1분은 ‘MSG워너비와 SG워너비가 만나 이룬 워너비 가문의 대통합’ 장면(19:08)으로, 수도권 기준 12.3%를 기록했다. MSG워너비와 SG워너비가 한 무대에서 만들어 낸 ‘내 사람’ 무대는 어느 시상식 부럽지 않은 흥과 호흡으로 안방을 뜨겁게 달궜다.

‘톱10귀 콘서트’ 마지막 방송에서는 MSG워너비 M.O.M(별루-지, 강창모, 원슈타인, 박재정)의 ‘바라만 본다’(작곡 박근태, 김도훈, 강지원, 작사 강은경)와 정상동기(김정수, 정기석, 이동휘, 이상이)의 ‘나를 아는 사람’(작곡 니얼, 작사 영준)의 공식



마지막 무대와 MSG워너비의 단채 곡 ‘난 너를 사랑해’(작사 작곡 로코베리)의 최초 무대가 공개됐다.

본부터 여름까지, 약 4개월간 함께 해온 여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특별하고 몽롱한 피날레 무대. MSG워너비는 소규모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하나된 목소리로 무대를 가득 채웠다.

아쉬움과 감사함으로 울컥 눈물을 터트린 이동휘를 시작으로 다른 멤버들 역시 추억이 녹아 있는 눈물을 흘리며 숨가쁘게 달려온 여정의 마지막을 뜨겁게 장식했다.

MGS워너비 8인 멤버들의 활동 종료 소감 역시 여운을 더했다. 김정수(김정민)는 “프로그램으로 얻은 선물과 행복감으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겠다”고 밝혔고 박재정은 “다시 노래를 하고 싶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가수 계속 하고 싶다”고 솔직한 소감을 드러냈다.

정기석(삼디)은 “가수의 꿈을 이룰 수 있어 좋았다. MSG워너비 포

자 ‘놀이 뭐하니?’ 출연 후 역주행 신화를 쓴 SG워너비가 그 주인공. SG워너비는 ‘아리랑’, 신곡 ‘넌 좋은 사람’, ‘해바라기’, ‘우리의 노래’, ‘양코르 곡 내 사람’ 등 귀호강 무대 열전을 펼쳤다.

‘내 사람’을 부를 때는 SG워너비와 MSG워너비가 하나로 뭉쳐 대체 남성 보컬 그룹의 대화합 무대가 펼쳐졌고, 유아호는 “한여름 연말 시상식 급 무대”라며 감탄했다.

또한 유행어 “나이스”를 탄생시킨 김진호는 새 유행어로 “WOW(와우)!”를 야심 차게 밀며 웃음을 자아냈다.

그런가 하면 여성보컬 그룹 비마마도 소환돼 레전드의 클래스를 증명했다. ‘Break away’, ‘거부’, 신곡 ‘하루만 더’까지, 넘사벽 가창력과 황홀한 하모니의 무대를 선사했다.

어릴 적부터 팬임을 밝힌 정기석은 심장을 부여잡으며 기쁨에 터진 사투리로 성덕을 인증, 무한 감동을 전했다.

제작자 유아호의 톱10귀를 증명하며 안방에 감동과 힐링, 추억을 소환하게 만든 MSG워너비. 귀호강 명품 하모니는 물론 노래를 향한 멤버들의 열정, 이들의 매력을 직접 체험시켜줄 수 있는 유아호의 노련미가 어우러져 또 하나의 레전드 프로젝트를 완성시켰다.

‘놀이 뭐하니?’는 제32회 도쿄 올림픽 중계의 여파로 다음주부터 약 3주동안 휴방하고, 오는 8월에 새로운 프로젝트로 돌아올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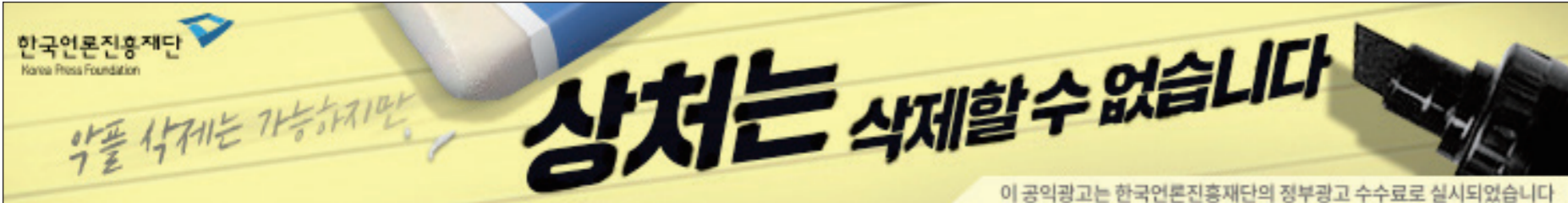
한편, ‘놀이 뭐하니?’는 고정 출연자 유재석이 릴레이와 확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유(YOO)니버스를 구축하며 ‘부캐’ 신드롬을 일으켰다.

코로나 시대에 잃기 쉬운 웃음과 따스한 위로가 동시에 전해지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전순희/기자

포토뉴스 청옥산 정상서 만난 ‘천상의 화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상처는 식제할수없습니다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낙연 “자궁경부암 HPV 백신접종, 국가가 책임지겠다”

변형카메라 구매이력관리제 도입 등 3개 여성안심정책 이은 4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자궁경부암 HPV 백신 국가책임'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1인 가구 여성 주거환경 개선(범죄예방환경설계) 등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발표한 3가지 여성안심 정책에 이은 네 번째다.

지지율이 급등하며 다른 후보들의 집중관심을 받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인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 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 때문에 ‘금수저 백신’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들린다”며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궁경부암 퇴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환자는 매년 3500여명이 발생하고 900여명이 사

망하는 상황으로, 특히 20~30대 자궁경부암 환자가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47%나 늘었다.

현재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작해 만 12세 여아에게 무료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들은 여전히 자궁경부암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그 이유로 “백신 지원 연령대가 좁고, HPV 백신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만 12세 때 접종하지 못하면 이후부터는 백신 접종을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자궁경부암을 퇴치한 첫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자궁경부암 퇴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첫째는 HPV 무료접종 연령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만 12세 여아에게 지원되는 HPV 백신 접

을 만 26세 이하 여성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26세까지 국가 예방접종 나이로 구분하고 있고 의료계와 학계는 최적의 여성 접종 연령을 9~26세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희망하는 만 18세 이하 남성 청소년도 접종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남성까지 접종해야 유병률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이 세계 의학계의 공통된 연구 결과다. 남성이 HPV에 감염될 경우 생식기 사마귀부터 곤지암, 음경암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에 따라 남성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주는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이라는 현 정부 사업 명칭을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교-보건소-지역 병원을 연계한 자궁경부암 백신-검진-치료 시스템 구축이다. 젊은 여성들이 HPV 백신 완전접종과 암 무료검진까지 관리 받을 수 있는 원스톱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



최광수/기자

이다. 참고로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에 한 번 자궁경부암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수검률이 40%대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제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특위 본격 활동 돌입

특위 활동계획서 채택 및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경남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삼동)는 지난 1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서 채택 및 집행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 활동계획서에는 구성배경, 구성개요, 활동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활동 계획으로 정부 및 경남도의 후쿠시마 원전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추진 상황 파악, 국회 및 중앙부처 등 각급 기관에 대한 방문, 지역 주민 및 관련 단체와의 공동대응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특위는 이날 도내 해양 방사능 오염수 유입 단속 대책,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안전성 관련 대책 등 경남도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오염수 유입시 도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였다.

박삼동 위원장은 “일본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력하게 저지하고, 방류가 시행될 경우 도민 건강 및 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윤기 의원, 오세훈 시장 방역 정책 실패 자가진단키트에 포상하기로

서울특별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시의 방역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서울시가 자가진단키트 사업을 서울시의 우수협업상 대상으로 선정하여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시의 자가진단키트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 10개 팀을 상반기 서울시 우수협업상 수상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은 과제의 적정성과 협업성, 협력을 통해 창출한 대내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협력 효과성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서윤기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자가진단키트 사업은 시민들에게 방역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 서울 4차 대유행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자가진단키트 검사 수신했던 건 중 확진자 선별 실적 4건에 불과해 사실상 성과가 없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각종 특혜와 법령 위반이 밝혀지는 등 처참하게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런 사업에 서울시의 포상결정은 취임 100일에 이룬 오세훈 시장의 촌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일갈했다.

서윤기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4

월 취임 이후부터 ‘상생방역’이나 ‘맞춤형 방역’이니 하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사용하여 중앙정부보다 완화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민과 언론에게 보냈다”고 지적하며 “이번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코로나 방역 대책 중 자가진단키트 사업은 전문가들의 부정적 의견을 일축하고 강행했다”며, “일부 소상공인의 아픔을 억압하여 인기에 영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시 자가진단키트 사업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시민건강국)는 재난관리기금 중 15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이 중 9억 원을 자가검사키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자가진단키트 구매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 부서들은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약 9억 원대로 납품 받은 후에 사후에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의회의 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을 지적하였다.

논란이 일자 시민감사가 청구되어 현재 서울시장의 지휘 감독과 독립

적으로 운영되는 합의회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알려진 바 있다.

서윤기 의원은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과 행정원칙, 제반 절차 등을 무시한 행정 행위가 오세훈 시장 등장과 함께 다시 나타났으며, 서울시의 구상과 구매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 공약이라는 점 때문에 실효성 없는 실패한 정책에도 실책 가점 또는 다른 어떠한 유형의 포상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이는 시민을 위한 (방역)행정이 아니라 시장과 공무원 개인의 사적 이해를 위한 행정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광수/기자



충남도의회 기경위 '농사랑, 전국 최고 쇼핑몰로 키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제330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실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일자리진흥원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오인철 위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도내 농산물 판매촉진에 앞장서 온 농사랑 쇼핑몰의 매출액 성장세는 반가운 일”이라며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내 생산 공산품까지 플랫폼을 확장해 온라인마케팅 시장을 충남이 선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 관심받고 있는 구덕경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마케팅 등 온라인시장의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19 지속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다”며 “경영 안정화를 위한 신용대출, 경영환경개선, 온라인마케팅홍보 지원사업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위원장은 또 “혁신도시 지정 등

호기를 맞고 있는 내포신도시에 신용보증 지점을 설치해 인근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일본 ‘백년가계’처럼 명문장수기업을 적극 육성해 도내 풀뿌리 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가업승계 준비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성공비결 노하우 특강이나 맞춤형 솔루션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같은 업무로 담당하는 직원 간에도 신분 차이로 인건비나 처우가 다르다면 좋은 직장인 아닐 것”이라며 “도내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는 일자리진흥원이 먼저 좋은 노동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표준으로 삼아 도내 전 사업장에 전파되도록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안장현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보니 위

원들의 다양한 요구가 쏟아졌다”며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추진상황들이 경제 활성화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영암군의의회, 타는 농심(農心)에 단비 뿌린 공무원 표창

영암군의의회는 지난 12일 의정실에서 영암군 건설교통과 황석태 농업기반팀장을 의정활동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했다.

황석태 농업기반팀장은 영암군 일대 농경지를 대상으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업기반 조성에 크게 이바지했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제방 및 시설물을 보수하는 등 신속한 일처리를 통해 농경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공헌했다.

또한 올해 모내기철 학파저수지 일대의 농업용수 취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과감한 행정을 펼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이바지하였다. 인근 경작자들은 황 팀장의 적극 행정에 응원메시지를 담은 플래카드와 언론 광고로 감사 표시하기도 하였다.

영암군의의회에서는 타들어가는 농심에 촉촉한 단비를 뿌려주어 농가들의 갈증을 달래주었던 점을 높이 평가하여 황석태 팀장을 표창 수여

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강찬원 의장은 “영암군민의 입장이 되어 공익 증진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친 모습이 공직자들의 본보기가 되었고 영암군의 의정활동에도 커다란 기여를 했다.”라며 “앞으로도 영암군 공직자들 모두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영암군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 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성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 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케니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집국: 02) 2612-2959 팩 스: 02) 2060-4147 구독신청, 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오세훈 서울시장, 마포구 무더위쉼터 합정경로당 방문

15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합정경로당을 방문했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 중 마포구를 포함한 5개구에서만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 마포구에서는 경로당 155개소 중 145개소가 무더위 쉼터로 운영 중이다. (자율 휴관 10개) 마포구는 어르신이 경로당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폭염 속에서 어

르신에게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함께 마포구민체육센터에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직원을 격려하고 방역대책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1. 유동균 마포구청장(왼쪽),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서울 마포구 합정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조상순/기자**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아파트 입주 개시

iH공사는 검단신도시 내에서 추진한 첫 공공분양 아파트인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이 오는 15일부터 입주민 맞이 행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터, 티하우스 등 입주자 편의시설 및 특화조경을 갖춰 입주자 사전점검 시 입주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iH공사와 금호건설(주) 컨소시엄이 민간참여 방식으로 추진한 총 1,452세대의 대단위 공공분양 아파트로, 민간건설사의 브랜드와 기술력에 민간 분양 주택 대비 공공의 합리적 분양가와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며 분양 당시 청약 1순위에 마감된 바 있다.

iH공사 이승우 사장은 "내년에는 검단 AA16BL에 현대건설(주) 컨소시엄과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중남/기자**



입주민들은 우수한 교육 및 교통여건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단지 옆으로 초, 중, 고가 나란히 신설될 계획으로, 향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에서 도보 내 통학이 가능할 예정이다. 인근에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이 예정되어 있어 검단신도시 내에서도 매우 우수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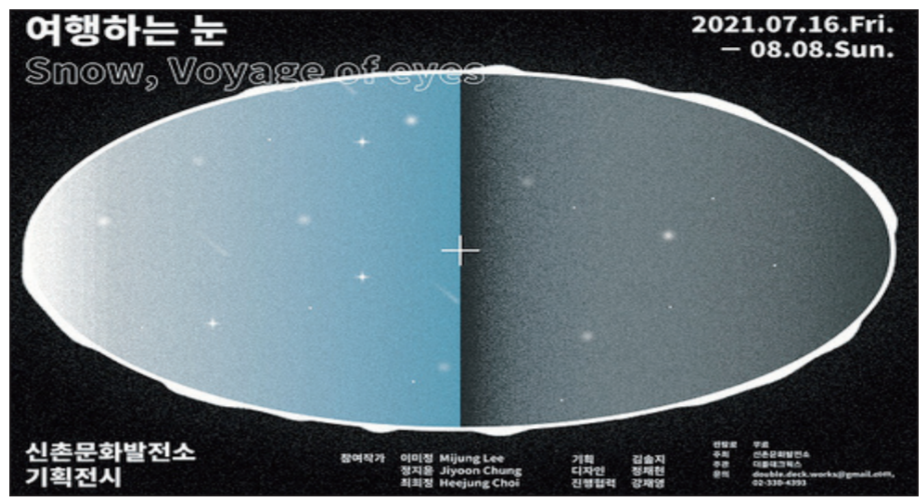
또한 조경면적 44%에 달하는 쾌적한 녹지공간과 넓은 동간거리, 다양한 테마정원과 석가산, 테마놀이

서대문구, 신촌문화발전소 '여행하는 눈' 기획전시 연다

이미정, 정지윤, 최희정 작가의 사진과 수채드로잉 작품 등 선보여

서대문구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신촌문화발전소(연세로 2나길 57)에서 기획전시 '여행하는 눈(Snow, Voyage of eyes)'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외의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미정, 정지윤, 최희정 작가가 '눈(eyes)'과 '눈(snow)'을 주제로 15점의 사진과 수채드로잉 작품 등을 선보인다. 최희정 작가는 전라남도 담양 '명옥헌'의 여름을 담은 사진들을 전시한다. 이미정 작가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그림 같은 풍경'을 검색할 때 나오는 이미지를 수채 드로잉으

로 구성했다. 정지윤 작가는 과거에 포착한 아이의 모습을 새로운 이미지로 그려 작품 속에 나란히 배치했다. 신촌 지역 전시기획자들이 모여 만든 '더블데크웍스(Double Deck Works)'가 이번 전시회를 기획, 진행한다. 기획자 김솔지 씨는 "보는 행위가 눈앞의 대상을 순간적으로 지각(知覺)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여름 수증기가 차가운 겨울 공기를 만나 눈 결정체가 돼 땅에 내리는 것처럼 긴 여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관객들과 공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중랑구, 문화·체육·도시재생 아우르는 중랑구 목2동 문화체육복합센터 '오는 19일 첫 삽 뜬다'



중랑구는 오는 7월 19일 목2동 문화체육복합센터(목동 243-1)의 착공을 시작하고 본격 조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41년 만에 새로 탐바꿈하는 목2동 청사는 오랜 세월만큼 노후화가 진행되고 생활체육, 문화 편의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구는 주민 요구를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청사로 신축을 꾀해 지난해 4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 실시설계를 마무리 한 바 있다. 다가올 22년 12월에 준공이 완료되면 연면적 3,499㎡의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돼 주민들과 만나게 된다. 목2동 문화체육복합센터는 이름처럼 행정, 문화, 체육을 아우르는 다양

한 세부시설을 갖춘 전망이다. 다목적 체육관과 체력단련실 등 생활체육 시설과 함께 작은 도서관, 문화교실, 대강당, 다목적실과 같이 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꾸려진다. 특히 지하 1층에는 목2동의 대표 사업인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관련 사업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목2동 문화체육복합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체육활동과 문화활동 등 건강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민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도봉구, 2021년 하반기 친환경보일러 993대 추가 지원

도봉구가 올해 하반기에 친환경보일러 993대 설치를 추가 지원한다. 구는 2021년 상반기에 이미 1,692대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되어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구민이다. 이번 추가지원은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한 소유주(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한 세입자(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순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되어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구민이다. 이번 추가지원은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한 소유주(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한 세입자(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순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1대당 일반가정은 2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이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순서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후 순위 신청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오는 8월 31일까지 보조금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도봉구청 환경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대상, 지원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1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추가 시행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보일러 대리점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친환경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보다



인천 동구, 제3회 한국문화가치대상 '우수상' 수상

인천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사단법인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가 주관하는 제3회 한국문화가치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공간인 우리미술관과 지역의 역사성을 담은 배다리성냥박물관 및 60·70년대 근·현대사박물관인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운영, 배다리 일원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고 문화예술인과 청년·다문화 계층의 창작과 창업활동을 위해 지원사업을 펼치는 등 동구만의 역사성과 독창성을 살린 다양한 문화정책들이 각 부분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한국문화가치대상'은 특색 있는 문화관광정책을 추진해온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엄격한 평가를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가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마련된 상으로, 올해는 조직역량과 사업성격·사업성 등 3개 항목에 대해 외부전문가 및 협회의 합동평가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했다.

앞서 '민선7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와 최고 등급(SA) 획득 및 '제19회 중부울곡 대상' 자치단체 경영부문 대상' 등 다양하고 우수한 정책 추진으로 구의 상을 수상해온 하인환 동구청장은 "한국문화가치대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동구의 역사문화 자산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현주희/기자**

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택트 공연 수요에 발맞춰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 '사랑방 콘서트'와 '송년음악회' 개최 등 온라인 문화공연 콘텐츠를 제작한 성과는 물론, 지역예술인의 조형물 설치를 통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동구 마을의 생활사·지역사를 조사·기록한 책자 발간,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예술



강동구, 무형문화재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정밀실측조사 보고서 발간



강동구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0호인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유물 정밀실측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출상 전날 밤 선소리꾼과 상여꾼들이 빈 상여를 메고 상여소리를 부르며 노는 놀이다. 이번 보고서 발간 사업은 호상놀이 참여 인력의 고령화 및 장비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전승 및 보존을 위한 취지로 추진하게 됐다.

정밀실측 대상은 ▲상상여(부부) ▲만장기 ▲의류복장 ▲장식물 등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에 사용되는 제반 장비·시설로, 조사보고서에는 각종 장비의 사진 촬영과 정밀현황 실측 및 도면, 상여소리 녹음을 담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 협조를 바탕으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의 유래, 진행과정 등 인문학적 내용도 포함해 제작했다. 조사보고서는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보존회, 사료관, 기록원 등 주요 기관 및 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조사보고서 발간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기반 자료를 조성하여 자연재난 및 화재 등 유사시 복원 자료뿐만 아니라, 수리 시 재설계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의 예술적 가치를 알리고 후계자 양성 등 체계적인 전승을 위해서는 전수관이 필요한 실정으로, 구는 무형문화재의 계승과 전통 장례문화 교육·체험 공간 마련 등을 위해 서울시와 협조해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도 검토 중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조사보고서는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의 보존·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며, "구는 앞으로도 귀중한 향토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용산구,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2차) 신청 접수

서울 용산구가 7월 21일~8월 3일 2주간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긴급재난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1차 접수는 지난 3~4월 이뤄졌다. 구는 예술인 210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았으며 소득기준 등에 적합한 예술인 168명(남 64, 여 104)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공고일(7. 7.)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한 '예술인 활동증명서' 보유자로 가구소득이 중위 120%(1인 가구 219만3397원, 2인 가구 370만5695원, 3인 가구 478만740원, 4인 가구 585만1548원) 이하여야 한다.

성정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인들이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구원의 범위는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등분 상 동거인 제외)로 한정하며 소득은 가구원수를 모두 합산한 건강보험료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예술인 재난지원금 외에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등을 통해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올 초 시행했던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1차 수혜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관계자는 "고령자, 장애인 등 사정이 있는 경우로 구청 문화체육과 사무실에서 현장 접수도 한다"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가끔씩 온라인으로 접수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만원, 접수 인원이 예산을 넘기면 지급액이 낮아질 수 있다. 구 자체 심의, 중복수급 여부 확인 후 9월 경 개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종로구, 치매 어르신 컬러링 북 만들기 등 '청소년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종로구는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2021 청소년 여름방학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에게 소외된 이웃을 이해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지닌 각종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천연 삼베 수세미 만들기 ▲친환경 퇴비 만들기 ▲치매 어르신을 위한 컬러링 북 만들기 ▲투명 플라스틱 분리배출 온라인 캠페인 진행 ▲관내 도서관 SNS 홍보 활동 등이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

이다.

'천연 삼베수세미 만들기'는 일반 수세미를 사용할 때 생기는 미세플라스틱을 삼베실로 뜯 수세미로 대체해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수세미 제작 키트를 사전 제공하고 샌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환경 교육을 시청하며 수세미 뜨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친환경 퇴비 만들기'는 가정에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계란 껍데기를 활용해 퇴비를 만들어 제출하는 프로그램이다. 봉사자 가정에서 만든 퇴비는 무악동 야생화단지 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단체에 전달 예정이다.

'치매 어르신을 위한 컬러링 북 만들기'는 어르신 인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가활동 거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식으로, 화상 플랫폼을 이용해 치매인지 개선 교육에 참여하고 색칠공부 책자 키트 또한 꾸미게

된다. 완성된 책자는 추후 종로구치매안심센터에 제공한다.

'투명 플라스틱 분리배출 캠페인'은 가정 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실천 모습과 교육 이수 소감문을 각각 SNS에 게시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관내 도서관 SNS 홍보 활동'은 구립도서관 한 곳을 방문해 도서관 전경과 도서열람 및 대출 방법, 도서관별 특화 정보 등이 담긴 후기를 사진과 함께 개인 SNS에 업로드하면 된다.

이번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할 시 7월 19일부터 8월 1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또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문의를 받는다.

김영중 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치매 어르신을 위한 컬러링 북 만들

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보람찬 여름방학을 보내길 원하는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성동구, 성수동 중대형 공연장으로 '문화예술도시' 생태계 갖춰

서울 성동구는 이달 15일 '특성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Ⅲ·Ⅳ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변경) 고시됐다고 밝혔다.

성수동1가 685-700번지(아크로서울포레스트) 및 685-701번지(부영호텔 건립부지)에 수립된 '특성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Ⅲ·Ⅳ 세부개발계획'은 지난 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하고 6월에 재열람을 실시, 이달 결정(변경) 고시되었다.

문화예술의 클러스터로 형성되기 위해 문화예술인들이 작은 공연부터 대형공연까지 할 수 있도록 환경적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지역 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중대형 공연장 마련을 위해 구는 2019년부터 서울시, 사업시행사(대림, 부영)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공연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부영호텔 건립부지는 약 1,000석의 다목적 공연이 가능한 중대형 공연장으로,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전시장으로 운영된다.

중대형 규모의 공연장은 지역의 명물로서 성동구가 문화 예술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문화예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고시를 통해 과거 서울숲 조성 전에 특성경마장의 경마로로 사용되었던 구간의 공공보행도로에

바닥표식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기존 경마장 형태로 선형 조정하며 역사적 흔적을 남기도록 조성, 해당 일대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예술도시로서 거듭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대형 공연장을 확보하며 성수동은 문화예술 중심지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성수동 전역에 다양한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조성하여 문화예술인들이 다채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추고 명실공히 '한국의 브루클린(Brooklyn)'이자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은평구, 소외아동 위해 예술체험 및 미술 관람기회 제공

은평구는 사비나미술관과 협력하여 오는 8월 14일부터 10월 31일 동안 '문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비나미술관에서 '문화주간' 동안 지역아동센터의 신청을 받아 예술체험 프로그램과 미술관 관람 기회를 지원한다.

국내·외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휴교 및 사회복지시설 휴원이 길어지고 있어,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은평구는 사비나미술관과 협력하여 예술을 통해 한정된 공간 속에서 느끼는 아동의 답답함을 해소해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등 교육 공백의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과 함께 성장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예술체험 프로그램명은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관 창작교실'으로 총 5회 진행한다. 미디어아트, 애니메이션,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함께 고품격 융복합문화예술행사가 열린다.

참가를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달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신청서를 지정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선착순으로 총 150명(30명씩 5회)이며, 전시 무료관람 신청은 오는 8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단 체험프로그램 이용자는 제외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문화주간 행사 체험을 통해 미술의 가치를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동대문구, '뉴딜 정책 확산' 탄소중립 '스마트시티 속도낸다

동대문구는 하반기 동대문형 뉴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에 추진된 사업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구는 2023년까지 총 1,900억 원을 확보하여 △기후위기 대응 탄소 배출 제로 그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스마트 디지털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 주도 뉴딜 정책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담아 올해 상반기에 '동대문형 뉴딜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구청장 주재의 동대문형 뉴딜정책 추진 사업 보고회를 진행하며 사업별 추진 방향을 세밀하게 계획했다.

이 과정을 통해 구는 총 12개 뉴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춘 탄소중립 및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그린, 디지털, 안전망 강화 등 3대 분야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린 뉴딜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동대문구청사 BIPV(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기배출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여 탄소 중립 실현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



다. 디지털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답십리도서관 내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취약어르신 안전·건강 관리를 위한 AI·IoT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화되는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망 강화 사업으로 △디지털 문해학습장 조성 사업 등을 진행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전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 구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상반기 선정된 뉴딜 사업과 연계한 후속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인천광역시 서구, 코로나19 확산에 대응...방역 활동 구슬땀

인천광역시 서구는 서구보건소를 중심으로 석남동 행정복지센터 자율방역단과 서구청 교구협의회 방역단 등과 함께 석남사거리 일대 코로나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석남동 지역은 호프집과 게임장 등 상업지역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석남1·2동 자율방역대로 구성된 서구청 교구협의회 방역단도 이번 확산세에 방역대응에 적극 동참해 석남동 전체로 방역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15일 기준 누적 7,622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서구에서만 1,400여 명을 넘고 있다.

이에 서구보건소는 기존 서구보건소와 검암역 임시 선별검사소에 이어 '드라이브스루'방식의 아시아드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일 평균 2,000건의 코로나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보이는 확산세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주민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와 코로나19 검사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중남기자



남동구, 화재로 소실됐던 소래포구전통어시장 표준계량대 재운영

남동구, 어시장 내 표준계량대 두 대 설치·소비자 신뢰 향상 기대

지난 2017년 소래포구 화재로 소실됐던 표준계량대가 어시장 재개장과 함께 다시 운영된다.

남동구는 최근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내 표준계량대 두 대를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표준계량대는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직접 계량할 수 있는 기구로, 수산물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시장 내 표준계량대는 지난 2017년 소래포구 화재 당시 어시장 내부 집기와 함께 불에 타 소실됐다.

이 때문에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이 지난해 말 현대화사업을 통해 재개장한 이후에도 소비자들은 구입한 물건을 바로 측정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구는 어시장 입구와 출구에 표준계량대를 1대씩 설치하고, 소래포구 방문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설치된 표준계량대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계되어 염분에 강하고, 방수방진 전용 플랫폼 등급



IP65를 취득한 제품을 사용해 내구성이 좋다. 또한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무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강호 구청장은 "표준계량대는 소비자들이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을 다시 한 번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구로구, 제31회 구로구민상 후보자 모집

구로구가 제31회 구로구민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구로구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구민을 발굴해 매년 '구로구민상'을 수상하고 있다. 올해 수상부문은 봉사, 효행, 문화예술, 교육, 생활체육, 지역사회발전, 안전, 경제발전, 환경 등 9개 분야다.

후보 자격은 2018년 9월 28일 이전부터 시상일까지 3년 이상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으로 ▲수상부문별 관계 기관·단체장 ▲구의원 2인 이상 ▲구민 30인 이상 ▲초·중·고등학교장 또는 대학총장 등의 추천을 받은 경우다.

후보자 신청을 원하는 이는 신청 서류를 갖춰 구청 자치행정과,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다.

구로구는 내달 중 공적내용 사실조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9월 말 시상할 계획이다.

김미성기자

제31회 구로구민상 후보자 추천

분야: 9개 분야 (봉사, 효행, 문화예술, 교육, 생활체육, 지역사회발전, 안전, 경제발전, 환경)

신청기간: 2021. 7. 12. ~ 8. 13. 18:00까지

대상: 구로구민상 후보자

신청처: 구청 자치행정과, 거주지 동주민센터

문의: 구청 자치행정과 02-860-2407

2021 아비나미술관 창작교실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관 창작교실

2021년 8월 ~ 10월

대상: 지역아동센터 아동

신청처: 은평구청 문화관광과

부안군, 꽃게 금어기 불법 해루질 특별 지도단속 실시

부안군은 꽃게 금어기(6월 21일 ~8월 20일)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업감독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자체 단속과 부안해양경찰서·전북도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등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단속은 해안가와 어촌계 양식장, 해수욕장 등 불법 해루질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어업인단체에서도 꽃게 금어기 현수막을 제작해 해루질 행위가 성행하는 양식장 및 해안가 등에 부착하고 꽃게 금어기 해루질 불법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어민들이 순번을 정해 야간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한수 부안군의원은 수산자원 보호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직접 트럭에 방송장치를 설치해 해루질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홍보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꽃게 금어기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이호성 해양수산과장은 “꽃게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꽃게 금어기 동안 불법 해루질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어업인이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을 위반해 단속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여름철에 해루질 행위로 금어기, 금지제장 등을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게 되면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되므로 탐방객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현태기자

평택시, 동물등록(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한시적 운영

평택시는 이달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을 활성화 및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의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동물 미등록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등 변경 사유 미신고는 4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동물등록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동물등록 및 동물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이 있을 계획이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변경은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을 통해

서 가능하며,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의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펫티켓 관련 홍보와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수원시 권선구, 도시공원 내 야간 음주 집중단속 실시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12일부터 매일 도시공원 야간음주 단속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약 두 시간 동안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이는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와 관련해 지난 12일 발효된 '도시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다.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에서 음주를 하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음에도 공원 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집중 단속을 위해 지난 15일에는 서경보 권선구청장 및 권선구청 간부공무원이 함께 관내 주요 도시공원에 대한 야간 음주행위를 단속, 점검 했다.

권선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내 야간음주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와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만큼 방역활동에 대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마산동부경찰서, 피서지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합동 점검

마산동부경찰서에서는 피서철을 맞이하여 이용객의 증가에 예상되는 갑천계곡 일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마산회원구청과 합동하여 진행하였으며 렌즈탐지형 장비를 이용하여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및 CCTV·비상벨 등 방법시설물 작동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또한, 합동점검 후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범죄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 등 시설물 보강을 협의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NC야구장, 대형마트, 맘카페 등 비대면 방법을 활용하여 불법촬영범죄 예방 및 신고요령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장시민 합동점검반을 운영을 통한 성범죄 예방효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경영기자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김천시는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을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발생·공공수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7월부터 8월까지 편성·운영하며, 폐수·가축분뇨 배출 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환경오염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무단방류, 비밀배출구 설치 등 엄중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 및 사법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후에도 중점관리등급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매년 지속적인 점검을 한다고 한다.

권세숙 환경위생과장은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전화로 신고하여 달라”며,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업장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사업장관리 등 철저한 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세기기자



부천시, 공원 내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

부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공원 내 야간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내 190개 도시공원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되며,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부천시는 14일부터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중앙공원, 상동호수공원 등 주요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공원 내 음주 및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공원 내 야간 음주가 적발되어 계도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발생에 따른 구상권이 청구된다.

김정완 공원관리과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갈 곳을 잃은 시민이 공원을 많이 찾고 있으나, 델타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공원 내 야간 음주 금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순희기자

정읍시·전북도, 내수면 양식장 의약품 사용 합동 지도·점검

정읍시는 지난 15일 전라북도 수산물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수산 동물용 의약품 사용 지도점검 활동을 펼쳤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양식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산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과 사용금지 약품의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이는 여름철 수온이 상승해 양식 수산물 질병 발생이 높은 시기이므로 치료목적의 수산용 약제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점검은 지역 내 내수면 양식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수산용 의약품으로 미승인된 약품의 보유 여부와 수산용 의약품의 사용실태, 용법·용량·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점검 양식어업인에게 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홍보하는 등 현장 지도도 연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메기와 동자개, 향어 등 양식어류 출하 지연과 단가 하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가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올바른 수산용 의약품 사용문화 정착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하은기자

최병암 산림청장, 땅밀림 우려지 현장 점검 나서

최병암 산림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땅밀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6일 경상남도 하동군 땅밀림 우려 지역을 방문하여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하였다.

점검 대상지는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에 위치한 땅밀림 우려 지역이며, 산지 내 균열 및 단차 등 땅밀림 징후가 관찰되어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다.

이번 점검은 땅밀림으로 인해 토사유출 등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응급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한편, 산림청은 땅밀림을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해 우려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전국단위 관리대상지를 발굴하고 있으며, 땅밀림 현상 분석 등 연구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 및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땅밀림에 대한 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광한루원의 봄

바래봉 철쭉

안성시 양성면, '독립운동 역사 마을 만들기' 홍보를 위한 야간조명 설치

안성시 양성면사무소에서는 양성면 특색사업인 '독립운동 역사 마을 만들기'를 홍보하고자 고보조명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성면에서는 시에서 추진 중인 독립운동 역사 마을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별개로, 지난해 '독립운동 역사 마을 르네상스 프로젝트' 행사를 개최하며 양성면의 독립운동 역사를 널리 홍보하고자 노력해왔다.

더불어, 양성면은 '독립운동 마을'이라는 양성면 이미지 홍보를 이어가고자 청사 외벽에 독립운동에 관한 4개의 조명과 가운데 태극기 조명을 설치하였으며, 4개의 조명에는 각각 4개의 필름이 삽입되어 독립운동의 정신과 항쟁의 모습, 양성면 대표 명소와 독립운동 항쟁지 등을 담은 총 16개의 스크린에 야간 청사의 외벽을 밝히게 된다.

면에서는 이번에 설치한 조명을 통해 야간에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안성 대표 독립운동지인 양성면의 독립운동 역사와 전통적인 역사유적지 등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순광 양성면장 및 이광선 독립운동 역사 마을 만들기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역사 마을의 행사나 직접적인 홍보는 어려움이 있어, 조명을 통한 간접 홍보를 추진하게 됐다"며 "양성면 역사 마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종균/기자

수원시 KT소닉붐 프로농구단 관계자, 염태영 시장 예방

남상봉 (주)KT스포츠 대표이사·최현준 KT농구단장·서동철 감독,집무실 방문... 염태영 시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남상봉 (주)KT스포츠 사장·최현준 KT농구단장·서동철 KT소닉붐 감독이 14일 염태영 수원시장을 예방하고, 환담했다.

KT소닉붐은 지난 6월 "수원으로 연고지를 이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훈련체육관(KT 빅토리움)과 사무국(KT 위즈파크)이 수원시에 있는 KT 소닉붐은 2021~2022시즌부터 서수원칠보체육관을 홈구장으로 사용한다.

집무실에서 이뤄진 이날 만남에서 염태영 시장은 "KT소닉붐 프로농구단이 수원으로 오게 돼 기쁘다"며 "KT소닉붐이 수원시에 정착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KT소닉붐 농구단은 구단명, 엠블럼에 '수원'을 표기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등 수원시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KT소닉붐 농구단은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연고 협약 체결식'을 열기로 했다. 2021~2022 시즌 프로농구는 10월 9일 개막한다.

KT소닉붐의 연고지 이전으로 수원시는 2001년 '삼성 썬더스'가 떠난 후 20년 만에 다시 프로농구팀을 보유하게 됐다. 프로야구·축구·배구·농구 등 4대 프로스포츠 구단을 모두 보유한 기초지자체는 수원시가 유일하다.

수원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구단은 KT위즈(야구), 수원삼성 블루윙즈·수원FC(축구), 한국전력 빅스톰(남자 배구)·현대건설 힐스테이트(여자 배구)가 있다.



최정근/기자

오산시 신장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담 연계 교육' 실시

오산시 신장동은 지난 13일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찾아가는 순회 교육인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담 연계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전했다.

교육은 박원주 강사(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공동대표)의 강의로 진행했으며 ▲금융사기예방 및 위험관리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소개 ▲위기대비 금융생활과 신용·부채관리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 날 교육은 줌 앱을 통해 강사와 33여 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간의 양방향 소통으로 진행됐다.

현재 신장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생활밀착형봉사자 등을 포함해 474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활동하고 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복지사각지대를 조기에 찾아내고 대상자를 발굴하는 인적안정망으로, 복지에 관한 관심과 봉사정신이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명예 공무원들이 위기 가구를 제보하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실태 등을 파악해 공공 및 민간 자원으로 연계해 지원에 나선다.

또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밴드를 개설해 긴급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위기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상호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언제든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놓고 있다.

유영만 신장동장은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음에도 사회복지서비스와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신장동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이번 서민금융 순회 교육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한 번 더 우리 주변을 둘러보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남주/기자

하남시,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 경영실적 평가 결과' 우수

하남시가 출자·출연기관인 하남문화재단, 하남시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2개 기관 모두 전년 평가 대비 결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서 15일 발표한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의하면, 하남문화재단은 S등급, 하남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는 A등급을 받았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에 따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내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경영평가는 평가전문기관인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지난 4월 6일부터 6월 14까지, 지난해 시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는 ▲지속가능 경영 ▲사회적 가치 ▲경영성과 등 3개 부문 30여 개 지표를 바탕으로 실시됐다.

평가는 세부지표별로 이뤄졌으며, 이를 합산해 총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 D등급부터, 90점 이상 S등급까지 평가가 매겨진다.

특히 올해 지표 중에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기관의 노력 및 성과를 반영했으며, 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사회적 가치 평가 비중을 지난해 12점에서 올해 30점으로 크게



높였다.

시에 따르면, 평가 결과 재단은 전년보다 2.49점이 향상된 총점 90.48점을 받아 S등급(전년 A등급)을, 하남시자원봉사센터는 전년보다 대폭 향상돼 11.92점이 오른 88.42점을 받아 A등급(전년 C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재단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무료 공연 진행 등 공연문화 소비패턴을 유지한 점, 홈페이지와 SNS 채널 활성화 노력,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 사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한 것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한편 센터의 경우도 코로나19 상황 속 맞춤형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커뮤니티 케어' 개념을 도입·

적용하며 지역통합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이번 센터 사례처럼 경영평가 결과가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것은 드문 사례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자·출연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전년 대비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인 것 같다"며, "이번 좋은 평가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경영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보다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8월 이후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에 공시될 예정이다.

박강호/기자

임병택 시흥시장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철저"

임병택 시흥시장이 14일 열린 공감회의에서 장마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분야별 대책을 공유하고, 동별 현장 상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상황을 감안해 주요 국장은 대면으로, 시흥시 19개 동장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시흥시는 지난 5월부터 폭염과 풍수에 대비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총 12개반으로 구성된 풍수해 TF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목록화하고, 관내 지하차도 등 재해 취약지역 책임담당제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다.

6개반 8개부서로 이뤄진 폭염TF는 생활 밀착형 폭염 대책 시스템을 구축했다.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을 완료하고 시 전역에 그늘막을 확대했다. 폭염 취약계층에는 냉방용품, 냉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등에는 양산대여소도 설치한다.

임 시장은 이날 무엇보다 동 중심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피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덧붙였다.

최정부/기자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수원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소방차·경찰차에도 적용

서철모 화성시장,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선출

8월부터 소방 지휘차, 경찰 순찰차에 우선 신호시스템 확대 적용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해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소방차·경찰차까지 확대 적용한다.

지난해 3월, 119구급차량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적용한 수원시는 8월부터 소방 지휘차·경찰 순찰차(각 2대)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추가로 적용한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119 구급차량이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차량 위치를 GPS(위성항법장치)로 추적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도입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시간은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1km를 이동할 때 평균 통행 시간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을 때보다 56.3% 감소했다. 올해 6월까지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활용해 환자 500여 명을 이송했다.

수원시 어디에서나 아주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화홍병원 응급실에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구급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어 구급대원들에게도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의 효과가 입증되자 시스템을 119 소방차와 112순찰차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고, 시스템 개선 작업을 했다. 8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서·경찰서에서 화재 현장·사고 현장으로 출동할 때 우선 신호시스템을 활용하면 전보다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 화재진압, 강력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센터 방식'으로 시내 전 구간 긴급차량 우선 신호를 구축했다.

교차로에 긴급차량 송신 장치·신



호제어기·무선기지국을 설치해 운영하는 '현장 방식'은 무선기지국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만 긴급차량 우선 신호를 작동할 수 있지만, 수원시가 도시안전통합센터 인프라(기반 시설)를 활용해 구축한 '센터 방식'은 도시안전통합센터와 연결된 모든 교차로의 신호를 제어할 수 있다.

'센터 방식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현장제어 방식보다 시스템 구축비용이 적게 들고, 우선 신호 구

간을 확장할 때 설비를 추가하지 않아도 돼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조두환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장은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이 시민 생명을 지키고,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소방차·경찰차 확대 적용으로 화재를 더 신속하게 진압하고,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정근기자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는 15일 2021년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서철모 화성시장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했다.

화성시와 서울 성동구, 부산 금정구, 광주 남구,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이천시, 과천시, 논산시 등 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석한 이번 총회는 화성시의 직접민주주의 사례발표와 지자체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의 안건상정, 새로운 임원선출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직접민주주의 사례발표에서 화성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자문단'을 소개했다. 서시장은 '시민에게 묻고 시민들이 결정한다'는 주제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중인 '온라인 정책자문단'의 의미와 성과, 활용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지방정부 간 민주주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 의결하고 향후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자치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자체장들이 함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는 실질적 지방자치 정착을 목표로 지난 2019년 8월 전국 15개 지자체장이 주축을 이뤄 출범했다.

김남주기자



성남시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 병·의원 310곳에 추가 도입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온라인 치매파트너 모집

부천성모병원, 폐렴 적정성평가 4회 연속 1등급

총 2만2115곳 설치...확진자 발생 때 역학조사 신속하게 이뤄져

성남시는 전화 한 통화로 방문 기록할 수 있는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을 지역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동네 병·의원) 310곳에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조처다.

병·의원의 신청을 받아 이달 말 설치 완료하면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은 기존의 2만1805곳 업소를 포함해 2만2115곳에 확대 설치된다.

안심콜은 업소·기관 출입 때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숫자 4 자리의 안심코드를 누르면 방문자의 출입 시간과 핸드폰 번호가 별도의 전산 서버로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수집 정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와 전파 차단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4주 후 자동 삭제된다.

확진자 발생 때 역학조사와 접촉자 파악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방문객도 길게 줄을 서서 업소별 QR코드를 찍거나 손으로 이름과 전

화번호를 적을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이 시스템은 앞선 4월 19일부터 7월 13일까지 지역 내 식당·카페 1만 2556곳, 이·미용업 3095곳, 학원·교습소 2779곳, 실내체육시설 1326곳, 노래연습장 520곳, 유흥시설 486곳, 독서실·스터디카페 263곳, 기타 780곳 등에 설치됐다.

시는 하루 최대 4만969건의 안심콜이 역학조사에 활용된 것으로 집계했다.

이성욱기자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치매파트너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치매파트너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도와주는 따뜻한 동반자를 말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이며, 초등학교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 100명에게는 휴대용 폴딩카드도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치매파트너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시 관할센터를 '상록수치매안심센터'로 지정한 다음,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면 치매파트너증이 자동 발급된다.

치매파트너가 되면 ▲배려하기(치매 어르신에게 먼저 다가가서 배려하기) ▲응원하기(온라인 희망메세지 작성 등) 참여 ▲정보전달(치매예방 정보 및 치매조기검진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상록수보건소 관계자는 "치매파트너를 적극 양성에 건전한 돌봄 문화 확산 및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치매안심센터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NAVER 치매파트너

치매파트너가 되어주세요

기간 | 2021년 7월 19일 ~ 8월 7일 (20일)

대상 | 안산시 주민 (초등학생 이상)
* 기존 치매파트너 수료자는 제외됩니다

방법 | 치매파트너 홈페이지에서 교육 영상(30분) 시청 (택1) 치매체크 앱 설치 후 '치매파트너되기'에서 교육 영상(30분) 시청

★ 홈페이지 가입시 관할센터 "상록수치매안심센터" 선택

제공 | 선착순 100명(휴대용 폴딩카드)

문의 | ☎ 481-5849, 5850, 5851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병원장 권순석)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제 4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번 4차 폐렴 적정성 평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2월 22일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항생제(주사) 치료를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전국 660개 기관, 43,34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부천성모병원은 지난 2015년 1차부터 4회 연속으로 1등급을 받았다.

폐렴은 미생물 감염으로 발생하는 흔한 폐질환이지만, 기침, 가래,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을 감거나 독감 등으로 오인하여 치료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과 시의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2019년 암, 심장질환 다음으로 국내 사망원인 3위를 차지했으며,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한편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폐질환 관련 전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 폐질환 치료에 있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받고 있다.

전순희기자

AI 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도시 오산

대구오페라하우스 객석,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객석교체공사와 함께 객석기부활동(Naming Donation) 추진

잊지 못할 장면 하나. 2016년 10월, 제14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메인오페라 중 한 작품인 오페라 ‘토스카’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고, 카바라도시 역을 맡은 테너 김재형은 그 유명한 아리아, ‘별은 빛나건만(Lucevan le stelle)’을 연주했다.

성악가의 절절한 호소력이 힘을 받자 폭죽은 객석에서 터졌다.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가 도무지 끊어지지 않자 지휘자의 리드로 ‘별은 빛나건만’이 다시 한 번 연주된 것.

대구오페라하우스 개관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고,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사례다.

‘오페라의 제왕’으로 불리는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는 여러 번 내한공연을 가져왔는데, 그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로 공연장에서 관객들이 보여주는 뜨거운 반응을 말한 바 있다.

“관객 없이는 아무 것도 아니다.” 도밍고의 말처럼 객석과 무대는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며, 좋은 공연의 감동을 증폭시킨다. 흔히 극장을 ‘생물’에 비유하듯, 실제로 모든 공연은 ‘라이브’이다. 따라서 공연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으로 객석, 다시

말해 관객을 들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03년에 개관한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올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객석 교체공사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180만 명이 가까운 관객들이 다녀가는 동안 극장 내 시설들이 낡게 됐고, 특히 객석 의자의 훼손도가 심각하였기 때문.

대구오페라하우스는 7월과 8월 사이에 기존 1,480석의 객석을 제거하고, 1,602석의 새로운 객석을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하며, 시야 장애를 최대한 제거하고 음향효과를 개선하게 된다.

객석 교체에 따라 잔향시간이 기존의 1.3초에서 1.49초로 길어지고, 음악 명료도는 4.15dB에서 2.50dB로 개선될 예정이다.

“이렇게 객석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수준 높은 관객의 눈높이에 맞추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의 감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박인건 대구오페라하우스 대표는 새롭게 단장한 객석이 첫 선을 보이게 될 ‘제18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개막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대구오페라하우스는 객석교체의 의미를 더하



기 위하여 ‘객석기부활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네이밍 도네이션(Naming Donation)’, 새롭게 자리잡을 객석 중 먼저 1층 360석을 대상으로, 좌석당 50만원의 기부금을 받게 되는데 기부자의 성명을 명판에 새겨 좌석에 부착함으로써 예술기부활동에 대한 감사를 전할 계획이다.

기부자 예우는 그 밖에도 기획공연 할인판매(20%), 기부자 대상 특별음악회 초청 등이 있다.

물론, 기부금영수증 발행으로 세액공제혜택도 제공한다.

“대구오페라하우스가 대구의 자랑스러운 공연장인 만큼, 시민 여러분

이 객석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야말로 시민의 극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박인건 대표는 향후 더욱 좋은 공연으로, 잊지 못할 감동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감이 최대치에 달한 지금, 대구오페라하우스 객석기부활동의 성공이 우리 공연예술계에 ‘파이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도 가져볼 만하다.

대구오페라하우스 객석기부사업은 대구오페라하우스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되어있으며, 기부희망자는 기부희망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할 수 있다.

남궁영기기자

경북 최초 구미시노동자작업복공동세탁소개소

구미시는 7월15일 구미시근로자복지지원센터 지하에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복 공동세탁소 “My구미 클리닝”을 설치하고 도시의원, 노동단체 대표, 경영단체 대표, 노동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을 한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My구미 클리닝”은 구미시에서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작업복 전용 세탁소로서 2020년 하반기부터 준비해온 사업이다.

올해 3월 장세용 시장이 위원장으로서 노사민정협의회 각 기관·단체장이 협의를 거쳐 세탁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노사상생을 위한 협력적인 관계 속에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경상북도에서 지원한 보조사업비 5천4백만원을 포함, 설치비 1억7천9백만원으로 세탁기 50kg 2대, 20kg 1대와 건조기 80kg 3대를 설치하고 기타 세탁에 필요한 비품 등을 갖추고 세탁소를 설치했다.

세탁사업은 지역내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으로 작업복 세탁비는 준주복 1벌당 1천원, 하복은 5백원이다.

My구미 클리닝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 위탁기관을 공모한 결과, 한국노총 구미지부가 선정

되어 1억2천1백만원의 운영비로 금년도 하반기 사업을 운영한다. 김동희 시장은 노동자 복지 증진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기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포부를 밝혔다.

장세용 시장은 “My구미 클리닝을 개소하기까지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경상북도청과 도의회, 김재상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그리고 노동단체, 경영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산업현장에서 땀과 인내로 얼룩진 노동의 가치를 천원의 행복으로 돌려주겠다.”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개소식에 참석한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도 노동자를 위한 예산지원이 시설이 완공되어 시의원들을 대신해 축하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이 번창하여 향후 2호점, 3호점으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이처럼 각계각층의 기대와 성원 속에 개소하게 된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My구미 클리닝은 10만 노동자의 도시 구미의 위상에 걸맞게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만식기자



영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세미나 개최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세미나」가 지난 14일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에는 김종철 영양부군수를 비롯해 정해걸 경북북부연구원 이사장, 장영호 영양군의회 의장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영양군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세미나의 기조 발제를 맡은 김용문 원장(창업진흥원)은 지역 발전의 흐름과 생활 트렌드 변화에 따른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의 소개하며, 영양군 내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 및 연계지원 체계 마련을 강조하였다.

세미나의 첫 발제를 맡은 이민규(산림청) 부장은 산림청의 국가 숲길 조성사업과 방향 설명에서 영양군 전체 면적의 86%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향후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경북 북부권역의 백두대간 클러스터를 활용한 공동 연대를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오상(경북대학교) 교수는 외씨버선길 방문객 설문조사 분석이라는 내용으로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를 통한 방문객들의 성향에 대해 발표를 하고, 언택트 시대의 외씨버선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주민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 생산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차중순 지담 대표의 지역 주민의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지속적인 외씨버선길의 운영을, 소설가 이근미 작가는 90년 대상을 타킷으로 SNS를 활용한 차별화된 홍보를 강조하였다.

허영숙 허브엔 대표는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정보를 디지털화를 통한 가치를 높이는 방안 모색을, 한국산업연구원 송우경 실장은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을 통한 활용과 예비 국가 숲길 지정 준비, 역세권 주변 대중교통 증편으로 접근성 극복 방안을, 이정희 안동 MBC 보도국장은 지역 주민 스스로

아이디어를 마련해 힘들지만 부족한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김종현 부군수는 “영양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부터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전국 최고의 명품 트레킹 코스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영천시, 연말 영천의 밤 금호강 영동교가 아름다운 빛으로 물든다.

총 사업비 11억원으로 미디어파사드 등 경관조명 설치, 야간경관 개선 기대

영천시가 도시의 아름다운 야간 경관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동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7월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5월 영동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의 실시설계를 비롯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14일 입찰공고를 했으며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잔여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말부터 공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동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1억원 전액 시비로 영동교 교량 양측 총 660m에 미디어파사드 연출, 교량 상부 보행자 스텝등, 수목 투광등, 교량 하부 천정 경관조명 설치 등을 통해 영천시를 가로지르는 금호강 위 영동교에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으로 영동교는 ‘금호강을 수놓는 밤하늘의 별빛’이라는 테마로 새로운 옷을 입는다. 단순한 LED 조명의 설치가 아닌 밝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다양한 조명을 연출해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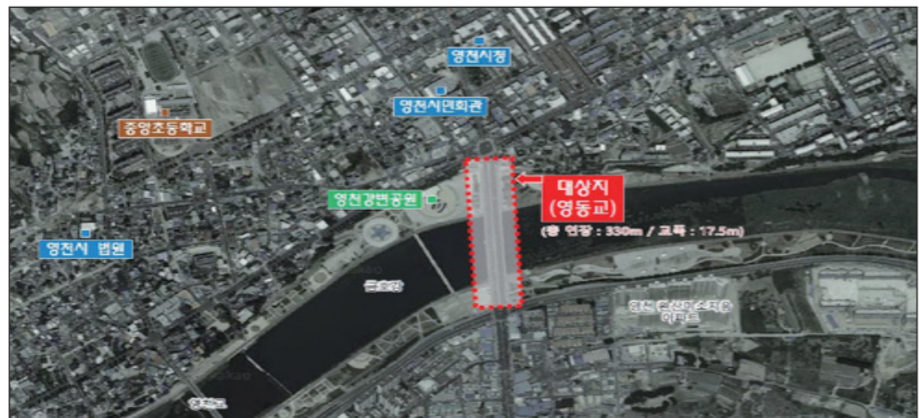
변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교량 측면에 설치될 LED 미디어 파사드와 금호강이 함께 어울려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연출해 일상에서 지친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 시 중심인 금호강변의 영동교가 이번 사업으로 새롭게 재탄생하게 된다”며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경관 이미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도시 영천’을 만드는 데 앞장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올해 망정동 유해 환경 개선사업, 언하동 시가지 음벽 디자인 개선사업, 시청 앞 대로변 간판 개선사업 등 다양한 도시경관 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도심 곳곳의 낙후된 경관을 변화시켜 시민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반식기자



행복한 성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착한가게 9개소 현판 전달

성주군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은 7월 15일 10시 관내 ‘착한가게’ 9개소를 방문하여 착한가게 현판을 직접 전달하는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착한가게’란 매월 3만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란 뜻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참여한 가게에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착한가게 현판이 수여된다.

이번에 동참한 착한가게는 성주읍 소재 9개소로 해물곱은잡탕, 명성동치미냉면, 우신탕본가, ㈜성

주자치신문, 별고을재가노인복지센터, 만물유통, 덕산의원, 원협식당, 분가함바식당이며, 착한가게를 통해 모아진 기부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번 현판식에 참여한 나눔 봉사단 및 자원봉사센터 일동은 “소중한 나눔의 뜻을 모아 지역 내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김이숙 나눔봉사단 명예단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따뜻한 이웃의 나눔으로 행복한 성주군이 될 수 있는 나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경상북도, 울릉도·독도의 생태학적 가치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려

경상북도는 16일 포항 포스코국제관에서 ‘특산식물로 증명하는 독도에서도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포럼은 환경경제신문 주관으로 울릉도·독도에서 자생하는 특산식물과 울릉도·독도의 생태학적 가치를 일반대중은 물론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기획된 것이다.

박재홍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장은 기조강연에서 “울릉도의 특산식물 52종을 소개하고 이중 섬기린초, 섬초롱꽃, 섬괴불나무 3종은 독도에도 서식하고 있다”며 “이들 특산식물 중 88%가 향상진화(anagenesis)의 생물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준이 요구하는 ‘생물학적 진화를 나타내는 사례’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판단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울릉도·독도의 세계자연유산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원 포항 세명고 교사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70여 차례 울릉도

와 독도의 식물조사 활동을 펼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사는 “특산식물 등의 학명이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 학자들의 연구 활동의 산물로 남아 있음을 조사활동을 통해 알게 되면서, 우리 것을 우리가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 활동을 지속해 왔다”며 “우리 생물학원에 대한 연구와 보존 활동 등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송경장 경북도 환경해지지역본부장은 “울릉도·독도의 역사적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울릉도·독도의 생태학적 조사·연구의 축적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경북도는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다양한 울릉도·독도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추진 등 큰 시각에서의 연구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이강덕 포항시장, 지역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현장행보 가속화

이강덕 포항시장은 15일 무인 포토키오스크 분야에서 독자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Web에이전시 전문기업 ㈜유비(대표 유창욱)를 방문해 현장 소통활동에 나섰다.

이번 기업 방문은 지난 2019년 포항시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유비에서 개발한 최첨단 IT솔루션을 활용한 무인셀프관리관 ‘무사엔’의 개소를 축하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유비는 지난 2003년 창업한 이래 Web에이전시 기업으로서 현재 전국 최고의 기술과 실력, 경력을 갖춘 회사로 발전해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대한민국 Web, App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인 포토키오스크를 직접 제작·판매하는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스마트업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간 활용을 자유로운 무인셀프사관관 ‘무사엔’의 개소는 언택트 시대와 맞물려 각종 SNS의 관심은 물론 많은 MZ세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영역의 블루오션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본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기술개발에 더욱 매진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중소기업의 지속발전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가족의 어려움과 돌봄 문제에 관한 세미나 개최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은 7월 15일, 하병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기념식은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제막식에 이

또한, 오후 2시부터 「코로나 시대, 돌봄 위기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

세미나는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위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이

지의 갈등으로 인해 여성이 겪는 경제 위기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위기가 코로나 시기뿐 아니라 돌봄

민말순 대표이사는 “이번 1주년 기념식은 앞으로 재단이 성평등한 지역사회의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

아울러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하병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경남에는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이 없어 갈수록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울산자치경찰 3대 우선시책’마련, 적극 추진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근)는 ‘주민이 최우선인 울산형 자

3대 우선 시책은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심 정책 ▲더 신속하고 편리한 주민중심 교통행정 ▲고위험 정

앞서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출범 후 주민 설문조사,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유관단체 정책자문을 실시하는 등 생활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3대 우선 시책’은 울산지역이 범죄에 대한 여성 불안감이 높은 점, 상습정체 교차로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주민요구가 커진 상황, 주민과 환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심 정책’은 범죄 예방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스마트 초인종’, ‘홈 시시티브이(CCTV)’ 등 6종의 범죄 예방물품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건축 허가를 낼 때 일

자·타해 위험이 큰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체계 개선’은 △경찰의 야간 응급입원 전담팀 운영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공공병상 확보 △울산의료원 설립 시 정신병

김태근 울산자치경찰위원장은 “하루빨리 자치경찰제도가 튼튼히 뿌리 내려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한편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울산시·울산경찰청·울산교육청 간 실무협의를 개최해, ‘3대 우선 시책’을 포함한 주민안전 시책을 추가로 발굴



김기현기자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개통

지역 주민 사전개통 이벤트...야간경관 점등식도 가져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가 7월 15일 개통식을 갖고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됐다.

동구청은 7월 15일 오후 7시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입구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정선석 동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개통식을 가졌다.

이날 개통식에 앞서 출렁다리의 안전과 동구 발전을 기원하는 동구풍물연합회 지신밟기 식전행사를 갖고 경과보고와 테이프커팅, 기념촬영, 출렁다리 걷기 등 개통행사를 가졌다. 이어 내빈들은 대왕암출렁다리가 보이는 일산해수욕장 중앙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오후 8시20분에 출렁다리 경관조명 점등식을 가졌다.

개통식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렁다리를 개방하는 이벤트를 가졌는데, 약 4,500여명의 주민들이 대왕암 출렁다리를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는 울산 최초

의 출렁다리이자 동구 최초의 대규모 상업관광시설로, 대왕암공원 북측 해안산책로의 돌출지형인 ‘햇개비’에서 ‘수루방’ 사이를 연결해 길이 303m, 폭 1.5m 규모로 조성됐다.

중간 지지대가 없이 한번에 연결되는 난간일체형 보도현수교 방식으로, 현재 전국의 출렁다리 가운데 주탑 간 거리(경간장)로는 길이가 가장 길다. 바다 위에 만들어져 대왕암 주변의 해안 비경을 잇게 즐길 수 있다. 동구청은 총 사업비 57억 가운데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시보조금 등으로 50억원을 확보해, 구비 부담을 최소화 했다.

또, 출렁다리에 라인바와 포인트, 동구 및 대왕암공원을 상징하는 문구와 그림을 활용한 ‘고보조명’으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 대왕암공원과 일산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야간 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간경관조명은 매일 오후 8시~11시에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울산시가 2023년 준공 목표로 대왕암 해상 케이블카와



짚라인 조성을 추진중이어서 대왕암 출렁다리가 동구의 체현관광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는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당분간 무료로 시범 운영한 뒤 그 이후에는 일인당 1~2천 원 정도로 유료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료 입장객에게는 지역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해 출렁다리 개통으로 지역 상권

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선석 동구청장은 “그동안 동구를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대왕암출렁다리 개통으로 그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조선업 불황 극복을 위해 동구의 연안에 조성중인 꽃바위바다리길 등과 더불어 동구를 체류형 관광지로 알려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부산 ‘평생학습벨리지 사업’, 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 재인증 획득

유네스코 지속발전가능교육(ESD) 인증제 18년 신규선정에 이어 21년 재인증

부산시는 ‘평생학습벨리지 사업’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 인증을 2018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재차 획득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는 경제발전, 사회정의, 환경보전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현재 지역사회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경제, 사회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내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사업 및 활동을 발굴하고 이들 중 우수사례를 국내외로 널리 알리기 위해 ESD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2개의 프로젝트가 공식 인증 받았으며, 올해는 11개 프로젝트가 신규로 선정되고 17개 프로젝트가 인증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받았다.

‘평생학습벨리지 사업’은 학습-마을-공동체를 엮어 지역에 맞는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자립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영명기자

서춘수 함양군수 “군민 참여방역으로 위기상황 슬기롭게 극복”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대군민 호소문 통해 군민 참여방역 당부

서춘수 함양군수가 15일 ‘군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최근 무더위와 함께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서춘수 함양군수의 대 군민 호소문은 전국적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7월 15일부터 7월 28일까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철저한 참여방역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군은 단계 격상의 첫 1주(7.15~7.21)를 집중 점검기간으로 설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방역사항 점검도 강화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함양군은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한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문자 알림, 마을방송,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홍보하였고 유관기관 협조문을 발송하여 전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전국적인 대

우행이 언제 어디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니, 항상 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및 수도권 거주자와 만남을 삼가 주시고 방문 시는 2~3일간은 마을회관 방문이나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최광용기자

| |
|---|
|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 최근 무더위와 함께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 군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수도권 등 도시지역 거주자와의 만남과,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직장이나 시설에서는 정기적인 방역을 해 주시고, 방문객은 발열도 인상을 등 확인행방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우리군의 백신 수급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 매실없는 백신 예방접종을 부탁드립니다. |
| 군민 여러분들이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 온 것처럼, 지금의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
| 2021. 7. 15. |
| 함양군수 서춘수 올림 |

김해시, '주민세 재산분' 8월에 사업소분으로 신고 납부해야

김해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 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납부시기가 8월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 주민세 연면적 세액(구.주민세 재산분)과 함께 주민세 기본세액(구.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연면적 세액은 지난해까지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씩 계산하던 방식과 동일하며, 주민세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기준 △50억 원 초과는 20만 원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10만 원 △30억 원 이하는 5만 원 △그 밖의 법인은 5만 원이 적용된다.

한편 시는 코로나로 힘든 사업자

를 위하여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30억 원 이하의 법인에 대하여는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를 연장하여 주민세 기본세액을 50% 감면 적용한다.

시는 올해 7월 납세자들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난해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에 우편발송 예정이다.

김해시 세무과장은 “지난해까지 주민세가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것을 올해부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착오 없이 8월에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개별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거창경찰서, 신원초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시

거창경찰서에서는 7.15 11시부터 50분 간 거창군 신원면 신원초등학교를 찾아 전교생 27여명을 상대로 학생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신원초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교통안전 교육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의할 점, 안전띠 의무 착용 등을 교육하였고, 특히 모형 신호등, 횡단보도를 직접 이용하

며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거창경찰서는 이번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거창군을 만들고, 체계적이고 양질의 교통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철기자





해남군,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건립 공모 선정

사업비 100억원 확보, 배추 등 노지채소 수급조절 청신호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은 생산·가격 변동이 심한 노지채소류에 대해 산지에서 농산물 출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대규모 저온저장시설 등을 조성하게 된다. 광역단위 수급조절이 가능한 출하조절시설 건립은 전남권에서는 처음이다. 출하조절센터는 화원농협을 사업 주체로 해 화원면 정운리 일대 4만 966㎡의 부지에 저온시설 6,600㎡, 예냉시설 396㎡, 사무실 및 위생실 661㎡로 건립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겨울배추를 비롯해 전국 최대 노지채소 재배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출하시설 조성으로 반복된 산지폐기와 수급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하향식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탈피해 먼저 정부에 출하조

절시설 건립을 제안하고, 농림부와 전남도, 국회 방문 등을 방문해 정책적인 공감대 확산에 적극 노력해 왔다. 명현관 군수도 수차례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생산량에 비해 채소류 광역 원예채소 출하조절센터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신규 사업 반영을 이끌어 냈다. 이번 사업 선정은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등을 통해 품목별 산지 여건, 수급관리 능력, 주산지 중심 협업체 운영 및 수급관리 프로그램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했다.

명현관 군수는 "수급조절 시설은 배추 주산지인 해남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남권역 계약재배 확대 등 노지채소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배추, 양파 등 노지채소류의 수급 조절은 물론 1회 최대 2,000톤의 물량을 비축하는 전남 서부권의 정부 원료 비축기지로서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양영욱/기자

김철우 보성군수, 김영록 도지사 만나 현안 사업 건의

김철우 보성군수는 15일 전라남도청을 방문, 김영록 도지사를 만나 보성군 주요 현안 사업 등을 건의하고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7월 초 내린 집중호우 관련 도로 침수 피해 지역과 항구적인 복구가 필요한 수해 지역을 전라남도 개선복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지방도 845호 겸백~울머면 간 교통 단절 구역(0.6km), △지방도 895호 겸백~북내면 간 교통 단절 구역(0.7km) 도로 구조 개선 사업 조기 추진, △미력천 상·하류 하천 정비 잔여 구간(2.45km) 전라남도 재해복구 사업

과 연계 추진 등이다. 김철우 군수는 "오늘 개선 사업을 건의한 지방도는 집중 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보성강댐 방류로 반복적으로 도로가 침수되어 마을이 고립되고 교통 단절로 구호활동까지 어려워 도로 구조 개선이 시급한 곳"이라며 "안전한 정주여건을 위해 항구적인 개선과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도민 안전을 위해서 보성군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김순호 구례군수 민선 7기 3년 공약사항 추진율 '94%'

민선 7기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의 공약사업이 94%의 추진율을 보이며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구례군은 민선 7기 3년을 맞아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지고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완료 29개, 정상추진 16개, 일부추진 3개로 94%의 추진율을 보였다.

구례군의 공약사항은 혁신행정, 정주환경, 지역경제 등 6개 분야 48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구례군은 민선 7기 48개 공약사항 중 △농산물 품질관리원 구례분소 설치 △국립민대아파트 건립 △농기계 임대사업장 추가 확대 △100원 택시 확대 및 1000원 버스제 실시 등 29개 공약을 완료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5일시장 재정비 △화엄사 시설지구 재정비 △표본 공영택지 조성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 △국내 최대 규모 생태공원 조성 등 16개의 공약사업은 정상추진 중으로 임기 내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전~광양 간 지방도로 터널 개설 △군청~황전IC 국도 18호선 4차선 확장 △화개~냉천IC 국도 19호선 4차선 확장 3개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등 장기간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다. 구례군은 지속적으로 상위부처에 건의하는 등 준비과정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공약은 민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민선 7기 공약이 임기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완료된 공약사업도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상훈/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실습 및 채용 설명회' 개최

광주시교육청이 1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8층 대회의실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실습 및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광주공고를 포함한 13개 직업계고의 취업 담당자,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의 회원사 등이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기업들이 고졸 채용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직업계고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 선정 기준 및 정부지원 혜택 등을 설명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직업계고 취업 담당교사들은 기업 관계자들에게 각 학교 학과를 소개

개했고,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와 채용 분야 관련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시교육청과 각 기업체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노력 ▲산·학·관의 상호 홍보 협력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등 정부지원 혜택 ▲선도기업의 광주시교육청 신청 접수 및 실사 후 인증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우수 중소기업 참여 및 기업 발굴·육성 등에 협력키로 했다.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백기상 과장은 "코로나19로 채용 환경이 어려운 와중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려는 기업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며 "채용설명회를 연중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채용



불안을 해소하고, 우수한 일자리 발굴 및 채용 후 장기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업계고 학생

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길 바란다"며 "학교·기업·광주시교육청이 고졸 취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여주시, 청소행정서비스 개선 위해 대형업체 평가

여주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여주시도서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점 93.23을 기록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주민만족도(40점), 평가단 현장평가(30점), 실적서류(30점) 등 3개 분야 14개 항목을 평가했다.

먼저 주민만족도 평가는 일반시민 98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수거, 생활환경보전, 시민편의, 종합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환경미화원의 친절도, 적정장비 등을 나타내는 시민편의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장평가는 사회단체, 지역주민 20명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이 현장을 방문해 수거구역, 차량관리, 차고지관리, 작업자 위생안전, 작업자 만족도 등을 직접 평가했다.

생활폐기물 전량 수거에 대한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도시관리공단 시설 및 작업 환경 등은 무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시는 긴급수거 등 민원대응,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항목에 대해 실적 서류 평가도 함께 실시했으며, 현장평가단으로부터 수렴한 다양한 의견은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청소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시관리공단에 통보되었으며, 청소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평가단에 감사드리며,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우리 시의 청소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쓰레기를 감량해 더욱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장성군, 광주권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강공 드라이브'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 등 거쳐 10월 착공... 12만 규모 소비시장 공략

장성군이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면 전라남도 계약심사와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건축공사 착공은 오는 10월 무렵으로 예상되며, 총 78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로컬푸드(local food)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농업인과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유통시설이다. 중간 유통과정이 생략되어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이 건립되는 곳은 광주 북구 오동동 일원이다. 해당 지역은 첨단3지구 개발 예정지 인근으로 12만명 규모의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농산물 판로 확보에 이상적이다.

장성군은 지난해 8월 한국농어촌공사와 부지매입 관련 업무협약

(MOU)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4월 최종 계약을 맺으며 5257㎡(1590평)의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기분계획 수립 용역 ▲국토교통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설계 공모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현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정비 공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준비도 한창이다. 장성군은 장성먹거리사업단을 통해 출하 농가 538명을 조직화했다. 최종적으로는 출하 농가 1000명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이 건립되면 현재 운영 중인 남면 로컬푸드직매장과 함께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장성 지역 최초로 개설된 남면 '농협장성

군로컬푸드직매장'은 작년에만 12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민선 7기 장성푸드플랜(먹거리 생산·소비·유통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 건립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하겠으며, 농사만 지어도 잘 살 수 있는 부자농촌 건설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오홍관/기자



장흥군, 농축협과 손잡고 '출생 첫 통장 축하금' 지원

장흥군과 관내 8개의 농축협은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신생아 출생으로 '우리 아이 첫 통장' 개설 시 10만 원 상당의 출생축하금을 지원

하고, 장흥군은 첫 통장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 박기승 본부장과 장흥군조합운영협의회 회장인 김의중 천관농협조합장을 비롯한 관내 축협, 지역 농협 조합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이 국가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인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장흥군과 농축협의 상호 노력으로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

회와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출생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생축하금은 올해 7월 이후 출생한 농축협조합원 자녀에게 지원하며, 지역 조합별 세부 지원 기준에 따라 일관성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증액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장흥군은 출생신고 시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농축협에서는 신생아 가족의 방문 신청 시 첫 통장 개설 및 출생축하금 등을 지급하게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 최초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을 지원해 온 장흥군은 2020년 합계 출생을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3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으로서 다양한 육구와 시대 흐름에 맞는 신규 지원 시책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업무 협약에 발 벗고 협조해 주신 지역 농축협조합장님께 감사드리다"며 "민관이 함께 출산 장려 분위기를 주도하고 상호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지역이 살아나고 출생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완도자연그대로미(米) 러시아서 인기, 네 번째 수출

완도군은 지난 15일 완도농협연합미곡처리장(RPC)에서 봉진문 완도부군수, 이복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남 완도농협조합장 및 읍면농협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도 쌀인 '완도자연그대로미' 러시아 4차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되는 완도자연그대로미는 18톤으로 부산항에서 선적되어, 일주일 뒤 러시아 사할린주의 쌀시장과 블라디보스토크 마트 등에 풀리게 된다.

완도자연그대로미는 2018년도에 할랄 인증을 받아 말레이시아에 첫 수출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미국, 2020년도에는 GAP 인증을 받아 러

시아까지 수출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 바이어 및 현지 주민들로부터 '한국에서 온 최고 품질의 쌀'로 인정받으면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700톤, 약 20억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완도 쌀을 위해 '새청무' 신품종을 도입하였으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밥맛이 좋은 쌀로 알려져 있고,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및 재배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완도자연그대로미는 오염되지 않는 토양과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미세날이 풍부한 해풍 등 완도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한 '자연그대로 농법'을 실천하여

생산한 쌀로 농촌진흥청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시범 사업 및 기술 지원을 받아 생산하고 있다.

한편 완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고 품질 쌀 단지' 342ha 전 면적에 우수 농산물 인증인 GAP를 획득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였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수출 길에 오르고 있는 것은 품질 및 안정성 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최고 품질 농산물 생산에 힘써 해양자유산업에 제공하는 등 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군 역점 사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영욱/기자

정읍시(주)덴하우스(주)테라에코, 15일 첨단과학산업단지 투자협약

(주)덴하우스 30억원, (주)테라에코 35억원 투자, 신규일자리 창출 기대

첨단방사선 연구소 기업인 (주)덴하우스와 화장품 전문 생산 기업인 (주)테라에코가 첨단과학산업단지에 65억원을 투자한다.

정읍시와 (주)덴하우스, (주)테라에코는 15일 정읍시청에서 첨단과학산업단지에 6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권경환 (주)덴하우스 대표, 이정남 (주)테라에코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덴하우스는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5,543㎡ 부지에 30억원을 투자하고 1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

(주)덴하우스는 정읍첨단방사선연구소 내 실용화 연구동에 입주해 있는 연구소 기업이다. 수년간 첨단방사선 연구소와 R&D(연구개발)로 기술을 축적한 회사로서 주요 생산품



은 의료용 골재생체다.

(주)테라에코는 3,894㎡ 부지에 35억원을 투자하고 11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주)테라에코는 인건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해양성 추출물을 이용한 마스

크팩 등을 생산하는 화장품 전문 회사다.

두 회사는 지역 인재 고용 등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투자 이행 등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투자보조금 지원과 인허가 절차 진행 등 행정적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정읍에 투자를 결정해 주신 덴하우스와 테라에코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두 기업이 우리 정읍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경환 (주)덴하우스 대표는 “기업인들에게 지금의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읍시에서 많은 기업이 모범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남원시, 지역 청소년과 함께할 '마을교사' 교육 실시

남원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청소년 지역활착사업 시작

남원시와 남원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은 지리산마을대학 청소년 지역활착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과 행복한 남원을 함께 만드는 마을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프로그램은 남원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단과 지리산마을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주관한다. 마을교사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진로활동을 안내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 분야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하는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모집인원은 20명이며,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지리산권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선착순 모집이 이미 마감됐다.

마을교사 교육은 7월 19일과 26일, 8월 중 하루 등 3회차에 걸쳐 남원시 산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문화공간 살래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세부 교육 내용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의미와 역할, 길잡이 교사의 역할과 프로젝트 실습, 선진지 견학 등이다.

한편 남원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은 지리산 마을대학을 통해 청소년 지역활착 교육을 본격 가동한다.

이 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 직업과 미래 농업 및 농촌에 대한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됐으며, 향후 지리산청소년직업학교, 공동체문제해결학교, 청소년 전담 교육지원조직 구축 준비 등의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남출/기자

청소년이 행복한 남원 지속가능한 남원
청소년이 행복한 남원을 함께 만드는 마을교사모집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사의 역할
마을교사의 역할
마을교사의 역할

1차 7월 19일(월) 18:30-21:30
2차 7월 26일(일) 10:00-18:00
3차 8월 중

장소: 살래문화센터(산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문화공간)

어린이 돌봄 운영합니다
문의: 010-5296-4133
초청수: 청소년지원센터 02-6101

남원시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 지리산마을대학

부안군4-H본부-줄포자동차고 4-H, 교류활동 추진

부안군4-H본부는 7월 14일 4-H 본부 소속 50명이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이하 줄포자동차고)에 모여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교류활동을 운영하였다.

이번 교류활동은 지·덕·노·체의 이념 보급을 위해 추진한 올해 4-H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접체될 수 있는 농촌계몽 운동인 4-H활동을 독려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우수 학생4-H회원 2명에게 소정의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도움이 필요한 회원 6명을 선정하여 각 가정으로 회원들이 직접 농산물을 배부해줬다. 또한, 이날 모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식물 재배관리 방법 습득을 위해 실내식물 재배관리 과제교육을 하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심재동 줄포자동차고 교장은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실천으로 배우자』라는 4-H 정신으로 열심히 활동한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쌀을 기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우리 학교가 4-H 회원들이 지역 발전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부안군4-H본부 김정 회장은 “작년에는 위도중학교4-H 회원들을 위해 학습용 유실수를 식재해 주었고, 금년 상반기에는 계화중학교 4-H과

제 실습장의 정비해주었다.『면서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서 우리군 4-H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구 부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농촌공동화 현상으로 장기적인 후계농업 인력 육성이 시급한 상황임은 감안, 4-H 운동을 통해서 미래 세대를 성장·육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김현태/기자



전춘성 진안군수-군 노인대학 학생 소통의 자리 마련



전춘성 진안군수는 15일 진안군노인회 부설 진안군 노인대학에 특별강사로 초청돼 6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상반기 군정 주요성과 및 현안, 진안군이 앞으로 나아가 갈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 대화의 시간도 함께 가져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춘성 군수는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노인대학에서의 배움을 통해 품위있고 당당한 노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초고령 사회에 마주한

진안군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계획하고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38기를 맞는 진안군 노인대학은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과 교양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총 5개 강좌(노래교실, 교양, 건강관리, 음악치료, 웃음치료 등)를 운영한다.

김광수/기자

익산경찰서, '남중 희망터널' 범죄예방 환경개선

꼼꼼한 안전순찰로 지역치안문제 선제적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해결

익산경찰서는 지난 15일 남중동 소재 희망터널의 인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할 중앙지구대의 지역안전순찰 중에 주민으로부터 '희망터널'은 인근 이리서초·이리여고 학생들이 통학에 이용하고 있지만 낮 시간에 오히려 어둡고 이를 이용한 일부 청소년들의 잦은 흡연으로 불안하다는 치안 문제를 발굴해 경찰서에 통보하였고 즉시 범죄예방진단팀이 현장진단·분석 후 시정 및 익산문화재단과 협업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이 약 2개월에 걸쳐 추진됐다.

특히, 익산문화재단의 '왕도정원가꾸기'사업과 연계해 희망연대 벽화팀·지역주민과 함께 친근한 캐릭터 벽화와 소규모 골목 정원을 조성했으며 또한 익산시와 협업 주간 터널 등을 신설(10대)하여 낮에 조명이

불완전해 검은 굴로 보이는 '블랙홀 현상'을 방지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송승현 익산경찰서장은 “자치경찰제 출범에 맞춰 주민 친화적으로 지역 치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해 나가면서 익산경찰이 더욱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선수/기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가로림만해양정원 반드시 조성돼야”, 맹정호 서산시장 민주당에 촉구

송영길 당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만나,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지원 약속

맹정호 서산시장이 15일 황금산 일원의 가로림만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산시 가로림만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송영길 당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호 비서실장, 이용빈 대변인, 민병덕 제2사무부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과 국도 38호선 해상교량 건설사업 브리핑을 시작으로 서산·태안 지자체장 및 양은숙 태안군내2리 이장 건의 순으로 진행됐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가로림만 159.85㎢에 2,448억 원을 투입해 생태자원을 활용한 자연과 사람, 바다와 생명이 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의 해양생태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센터, 집박이불법 전시홍보관, 해양문화예술 섬 등이 들어서 시민들의 새로운 명품 생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8월경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맹 시장은 “가로림만은 국

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해양생태계 건강도 상위 25%, 환경가치평가 전국 1위를 차지할 만큼 보전가치가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충남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조성되면 세계적 해양생태관

광거점이 되고 매년 4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당차원의 큰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대전시,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성공적 개최 준비 착착'

대전시는 1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 사무국과 2022년 총회 개최를 위한 온라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UCLG 세계총회 개최 준비를 위한 총회 주제와 프로그램 선정, 홍보 계획, 행사장 및 인력 규모, 재정 등에 관한 사항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대전시가 제안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허태정 시장과 에밀리아 사이스(Emilia Saiz) 사무국장이 서명했다.

2022 대전 UCLG 총회는 140여 개 가입국 도시 정장과 1000여 개 지방정부 대표, 유엔, 유네스코, 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행사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는 세계 지방자치단체의 UN총회로 불리고 있으며, 허태정 시장이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2019 제6회 UCLG 총회'에서 직접 유치활동을 벌여 유치에 성공했다.

UCLG 세계 사무국 측에서도 7월

중에 내년 총회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양측 전담 조직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총회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조직위는 실무협의를 위해 9월 중 UCLG 세계 사무국이 위치한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방문해 UCLG 측 실무진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10월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이 직접 UCLG 세계 사무국(바르셀로나)을 방문해 공식 대면 협약식 총회 개최 D-1주년 기념행사 등을 가질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UCLG 세계 사무국 사무총장과 실무진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고, 온라인 협약식은 양측 간 성공적인 개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세계 사무국의 2022 총회 전담팀과 긴밀히 협력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전시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행사로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논산~가수원 호남선 고속화·강경~계룡 광역철도망,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확정

황명선 논산시장,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제적 사업 '강조'

논산을 지나는 2개 철도 노선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최종 반영됐다.

6월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반철도 고속화 사업(호남선 가수원~논산)과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 사업(강경~계룡)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됐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최상위 법적 계획으로, 이번 제4차 계획은 2021~2030년까지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추진전략이 담겨있다.

그동안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제4차 계획은 비수도권 소멸 및 지역균형발전 문제 해소에 중점을 뒀는데 의미가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충청권 광역 철도망 구축은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광역경제생활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제적 사업임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건의해왔다.

대전·충청·호남권을 아우르는 호남선 고속화사업은 가수원~논산 직

선화 사업으로 총사업비 7,415억 원이 투입, 오는 2028년 완료 예정이다.

100년 전 만들어진 호남선 철도 구간인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은 큰 인력이 없는 평야지대임에도 굴곡과 노후 등으로 인해 그동안 지속운행의 대명사로 불려 왔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서대전역에서 논산역 구간은 10여 분 가까이 단축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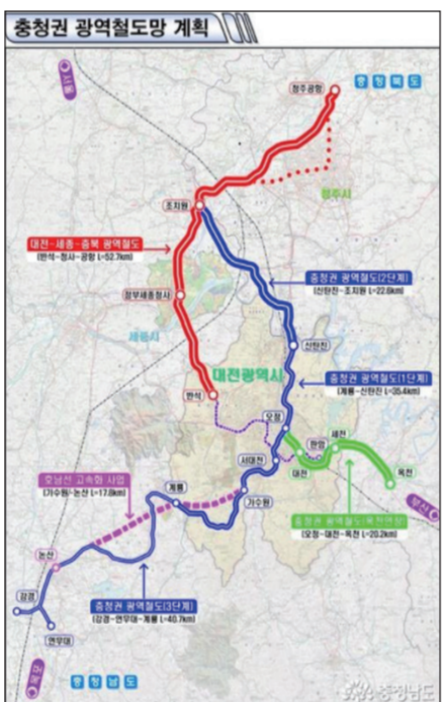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 사업은 기존선을 활용해 강경에서 계룡을 잇는 사업으로 총 연장 L=40.7km, 총 사업비 511억원이 투입된다.

충청권 광역철도 1~3단계(청주공항~조치원~신탄진 및 계룡~강경) 사업이 완료되면 청주공항으로 가는 길이 광역철도로 연결되고,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충청권 광역 철도망구축은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계획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충남·충북·

대전·세종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해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호기자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농민 곁에 더 가까운 새 진입로 개통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센터를 찾는 지역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새 진입로를 개통했다고 16일 밝혔다.

농기술센터 새 진입로는 19번 국도(충원대로) 금가교차로에서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앞을 지나는 왕복 2차로이다.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8년 10월 동량면에 위치한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기존 테마농업 연구단지에서 연결된 진·출입로를 이용해 충주시 방면 진출이 어렵고 좁은 지하도를 통과하는 방문객들의 불편과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이번 새 진입로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와 이용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새 진입로 개통에 이어 충주의 농업 비전을 상징하는 조형물도 8월 중 설치할 예정이다.

정진영 소장은 “농업에 대한 어려움, 궁금증 등에 최고의 도움을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언제라도 편한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 진입로로 센터를 찾아오는 시민들이 첨단농업을 향배하는 충주의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동량면 11ha 부지에 청사, 친환경 농업연구관, 농업 기계교육관, 친환경미생물관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함께 농심 생태체험 학습원, 1.5km의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최만식기자

강릉시, 주문진 제2농공단지 준공 4년만에 분양 완료

동해바다를 조망하는 주문진 제2농공단지가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에 이어 지난달 분양을 마무리했다. 주문진 제1농공단지과 인접한 제2농공단지는 주문진을 교항리 1263-3번지 일원 157,531㎡의 규모로 조성된 이후 강릉선 KTX 개통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준공 4년 만에 분양을 완료하게 되었다.

주문진 제2농공단지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입주를 완료하면 총 25개 기업이 가동될 예정이며, 주문진-연곡-사천에 분포되었던 수산물 가공업체의 집적화로 지역 환경개선 및 기업 비용절감의 시너지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식품가공업체는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제품개발 다각화로 향토기업의 한계를 벗어나 수출유망기업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조경시설, 조명기기 제조기업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조달청 우수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제1농공단지를 포함하여 2020년도 기준 950명의 고용창출과 1,8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한편, 주문진 제2농공단지는 1980년대 말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 조성된 주문진 제1농공단지 이후, 산업 여건의 다변화로 인한 지역 향토기업 입주수요를 반영하여 지난 2017년에 조성되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코로나19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과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입주기업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기업경쟁력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태안군, 고남면민 숙원 '녹지공간 조성' 팔 걷었다!

태안군이 고남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장곡저수지 일대 녹지공간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군은 지난 15일 고남면 장곡저수지 일원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원,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곡저수지 공원화 사업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장곡저수지 공원화 사업은 고남면 장곡저수지 주변에 정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수목을 심어 지역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곡저수지 일원에 배롱나무 137주를 심고 정자 1개소를 설치했으며, 주변경관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해 고남면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녹색 휴식공간 제공에 나섰다.

한편, 총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이번 사업은 고남면 대표 녹지공간 조성을 염원해온 고남면 발전협의회 및 주민들에 의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돼 그 의미를 더해



다. 태안군도 가세로 군수가 직접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왔으며, 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에 앞장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군은 준공 이후의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며,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준공식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는 “국도77호선 개통으로 태안의 남쪽 관문으로 거듭난 고남면에 대표적인 녹지공간이 없어 아쉬웠기에 오늘 준공행사가 더욱 뜻깊다”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당진시, '바지락종패 42톤 방류' 어업인 소득증대 기대

당진시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석문면 장고항·난지도어촌계 마을 어장과 패류 양식어장에 바지락종패 42톤을 방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바지락종패 방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고갈 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방류한 2cm크기의 바지락종패는 1~2년후 4cm까지 자라면 채취할 수 있으며, 당진 바지락은 살이 통통하고 맛이 좋아 주말에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아 체험활동을 하는 곳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2억3000만 원으로 조피불락 17만미, 해삼 13만미를 석문면 해상과 양식장에 방류할 예정으로, 1~2년의 성장과정을 거치면 관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낚시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당진시는 작년에 사업비 101억 원을 들여 당진화력 운배수를 활용한 첨단 친환경양식장을 조성하고 원다리새우 300만 미를 입식, 올해 시중에 판매를 시작하며 어민 소득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김원호기자



용인시, 이정수 수원FC 수석코치 3000만 원 기탁

용인시는 국가대표 출신의 이정수 수원FC 수석코치가 15일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이사장 김춘식)에 유소년 축구 꿈나무 지원금 3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용인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김춘식 이사장, 이정수 선수 등이 참석했다.

이정수 선수는 지난 2019년부터 재단과 약정을 체결하고 용인의 축구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매년 3000만 원씩 기탁하고 있다.

이정수 선수는 약정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10년간 총 3억 원을 기탁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용인시축구센터에 등록돼 있는 유소년 축구선수 20명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2019년부터 지역 후배 양성을 위해 이정수 선



수의 모교인 포곡초등학교를 비롯해 어정초등학교에도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유소년 축구 팀 운영금도 지원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매년 거액의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는 이정수 선

수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시도 축구 인재 양성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정무/기자

하남시, 故 박해영 하사 유족에 6.25 화랑무공훈장 전수

하남시는 지난 14일 6.25 전쟁에 참전해 무공을 세운 故 박해영 하사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김상호 시장은 이날 시장실에서 하남시에 거주 중인 故 박해영 하사의 조카 박영철 씨 등 유족에게 정부를 대신해 화랑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전달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6.25 전쟁 당시 공을 세운 무공훈장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지금까지 수여 받지 못한 유공자를 발굴하는 '무공훈장 찾아주기'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故 박해영 하사는 1951년 지리산 지구 전투에 8사단 분대장으로 참전해 전공을 세우고 이듬해 전사했으며, 이후 1954년 무공훈장 서훈

이 결정됐으나 수여되지 못했다.

이번 활동으로 관련 기록이 발굴됨에 따라, 6.25 전쟁 71년 만인 올해 故 박해영 하사의 무공훈장을 유족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유가족 박영철 씨는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를 높여주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영예를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상호 시장은 "오늘날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호국영웅들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고 밝히고, "유공자와 유가족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도 보훈 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강호/기자



광주시, '(주)클린시티' 광주시 북부무한돌봄센터에 선품기 60대 기탁

(주)클린시티 임은애 대표는 15일 북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를 방문, 선품기 60대(18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임 대표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홀몸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나기를 바라며 이웃들에게 동참하게 됐다"고 기탁의사를 전했다.

기탁된 선품기는 관내 홀몸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주)클린시티는 2013년 설립된 사회적기업으로 방역소독, 저수조 클리닝, 건물위생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청소전문업체로 코로나19 방역소독 봉사활동,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청소) 등 수시로 재능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매년 수익금의 일부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아동청소년 영양지원 사업 등에 기탁해 지역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박강호/기자



제27대 이천시 동해해양경찰서장 취임

동해해양경찰서는 15일 오전 10시 각 과장과 함·정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간소하게 제27대 동해해양경찰서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천시 서장은 취임사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소임을 다하고, 해양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를 확고히 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여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서로 배려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전남 나주 출신인 이천시 신임 서장은 1988년 해양경찰 준경으로 입사해 해경청 특공대장, 기획조정관실 교육담당관, 서해5도특별경비단장, 보령해경서장, 남해청 구조안전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지난 2020년 7월 부임해 1년 동안 근무했던 정태경 전임 서장은 30여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이동원/기자



동두천시, (주)지행파트너스 백미 2,220kg 기부

동두천시는 (주)지행파트너스에서 15일 소의된 이웃들에게 전례달라며 백미 2,220kg(20kg 4포, 10kg 214포)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주)지행파트너스는 '지행역 센터레빌 파크뷰'시행사로 건분 주택 개관일에 축하 화환 대신 받은 백미 1,660kg에 추가로 560kg을 구매하여 뜻깊은 나눔을 실천하였다.

(주)지행파트너스 정기욱 대표는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부해주시는 쌀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홍성군의용소방대, 코로나대응 유공 행안부 표창 수상

홍성군은 15일 홍성군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와 군민의 안전을 위해 꾸준히 방역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홍성군에 따르면 홍성군의용소방대는 지난해 코로나19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터미널과 전동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소독과 생명나눔 헌혈, 방역 취약지역 소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방역활동을 전개하며 안전한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방역의 최일선에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홍성군 의용소방대 김문석 연합회장은 "대원들 모두 생업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해준 대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이웃과 지역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성군 의용소방대연합회는 11개 읍·면대 남녀 6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산불 및 각종 화재로부터 지역 주민의 재산 및 인명 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다.

김원호/기자



대구시의회 이시복, 이영애 의원 '우수의정 대상'

대구광역시의회 이시복(비례), 이영애(달서구 1) 2명의 의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하는 '제10회 우수의정 대상'에서 지난 3년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구시의회는 7월 14일(수)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상식을 열어 '우수의정대상'에 선정된 2명의 의원들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이시복 의원은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등 조례 12건을 대표 발의하는 등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쳐며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에 힘써 온 부분과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는 각종 조례 발의와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의회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영애 의원은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등 조례 16건을 대표 발의하면서 내실 있는 입법활동을 펼친 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 출산장려정책 실시'를 촉구하는 등 문화복지분야 전반에 대한 감사와 정책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온 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투명하고 균형 잡힌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등 생산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대구시의 주요 현



안을 이끌어 온 부분에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시복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대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깨어있되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고, 이영애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수의정대상'은 전국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해 온 우수의원을 선발하여 2014년부터 매년 시상상을 이어오고 있다.

남영명/기자

청송군, 한국문화가치대상 3년 연속 수상

청송군이 지난 7월 15일 (사)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가 주관한 '제3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3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군은 제1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관광문화진흥분야 우수상을 수상하고, 제2회에서는 문화정책 MVP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 제3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여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한국문화가치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광·예술분야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문화정책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한국의 문화가치를 향상시키고자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2020년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문화분야 공약사업 및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문화정책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내·외부 평가단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총 31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청송군은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주민 자율운영, 청송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다양한 문화관광정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한 노력들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핵심 공약사업이기도 한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정적 산림자연을 활용한 관광단지 조성으로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관광지로의 변신에 도화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온택트 청송 유네스코 지질공원 교육 프로그램'의 높은 호응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유익한 여가생활을 위한 '청송군 파크골프장' 조성·운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정한 자연은 물론 전통과 문화가 있고,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한 청송군이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3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문화는 곧 지역의 얼굴로 인식되는 만큼 청송군만의 고유한 문화를 쌓아 올려, 문화와 예술의 숨결이 깃든 '산소카페 청송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제28대 울산해양경찰서장 김태균 총경 취임

국민의 눈높이 맞게,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해양경찰로 도약 할 것

울산해양경찰서는 15일 제28대 울산해양경찰서장으로 김태균 총경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태균(51세) 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직원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는 뒤 관내 치안상황을 정취하였다.

김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강조했다.

또한 소통과 공감의 마음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해양경찰상을 제시하며, △ 국민이 만족하는 해양경찰 △ 상황대응에 강한 해양경찰 △ 청렴하고 감동적인 해양경찰 △ 소통하고 화합하는 해양경찰 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자강불식(自



強不息)의 자세로 정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 영주 출생인 김 서장은 2006년 제48회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경정특채로 해양경찰에 입문하여 창원해양경찰서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 해양경찰청 형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전임 울산해양경찰서장 박재화 총경은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기현/기자

경상북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려내는 꿈·희망·소통의 장

경상북도는 16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사단법인 경상북도장애인협회(회장 박선하)가 주관하는 '2021년 경상북도 장애인종합예술제' 시상식을 지역기관·단체 인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2021년 경상북도장애인종합예술제'는 도내 장애인들의 예술적 관심과 잠재력을 향상하여 자립·재활의지를 다지고, 예술활동을 통한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로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작품 관람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수많은 장애인문화예술인을 발굴해 왔다.

이번 '2021년 경상북도장애인종합예술제'는 문학(시, 수필), 미술(그림, 서예), 사진 등 6개 부문에서 2개월(3.15~5.28)간 공모를 한 결과 579점의 작품을 출품하여 각 부문별 심사위원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 51명이 입선하여 수상하게 되었다.

이번 예술제에서 영예의 대상인 도지사 표창은 사단법인 경북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류종수씨가 수상하였다.

채근담의 한구절을 서예로 작성해 대상을 차지한 류종수(71세)씨는 지

체5급의 장애를 극복하고 스스로 부단히 잠재력을 개발하여 이뤄 낸 결과로 행사 참석자는 물론 주위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았다. 한편, 최미화 경상북도 사회소통실장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점차 확대하여 장애로 인한 사회활동 장벽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인 소통하는 자리가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함양군, 비보이와 국악의 협연공연 '리듬 오브 코리아' 개최

함양군문화예술회관은 비보이팀 '진조크루'와 국악 월드뮤직그룹 '고래야'의 협연공연 '리듬 오브 코리아'를 오는 8월 6일(금)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리듬 오브 코리아는 금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앞서 아동극, 퓨전국악 콘서트에 이어 세 번째 공연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함양군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함양군문화예술회관이 후원하고 있는 이번 공연은 지방 문예회관 활성화와 문화소외계층에게 좋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조크루'는 지난 2001년 팀을 결성 후 세계 최초로 비보이 5대 메이저 대회를 석권하고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고래야'는 전통음악과 현대의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한국음악을 추구하는 국악 월드뮤직그룹으로 지난 2011년 신진 국악콘테스트에서 대상 수상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공연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두 그룹의 세련된 비트, 환상적인 비보이와 독창적인 국악의 협연으로 전통과 현대, 동서양의 조화를 보고 듣고 즐기고 관객과 함께하는 최고의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시간은 60분이며, 관람료는 1층 5,000원, 2층 4,000원으로 예매는 온라인(인터파크) 및 현장결제(문화예술회관 1층) 가능하다. 공연 문의는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 공연예술담당(☎055-960-6710)으로 하면 된다.

강영훈기자



서울역사박물관, 7-10월 장애 넘어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영화관' 온라인 상영

하반기(7~10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온라인 배리어프리영화관 개최

서울역사박물관 하반기 배리어프리영화관 상영이 막을 올린다. 7~10월 매달 넷째 주 목요일 14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배리어프리영화를 개최하며, 하반기 첫 상영인 7월 22일(목)에는 신동일 감독이 직접 연출하고 이일화 배우의 내레이션이 함께하는 배리어프리버전 '보이콰이어'를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다.

'배리어프리'란 '장벽 없는 건축설계(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에서 유래한 말로,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개념이다. 본래 건축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해 오늘날에는 건축 시설물의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분야로 적용·확장되어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배리어프리영화'는 기존의 영화에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해설과 화자 및 대사, 소리정보를 알려주는 배리어프리자막을 넣어서 제작한 영화로, 장애를 넘어서 모

든 사람들이 다함께 영화를 즐기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이정은, 이일화 등 인기 방송인과 많은 영화감독들의 재능기부로 배리어프리영화가 제작되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사)배리어프리위원회와 협력하여 2015년부터 꾸준히 상영을 이어오고 있다.

하반기 박물관 배리어프리영화관에서는 총 4회의 배리어프리버전 영화 상영이 예정되어 있으며, 7월 22일 '보이콰이어' 외에도 8월 26일(목)에는 광복절을 맞이하지 않고 기억해야 할 역사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김복동', 9월 23일에는 주요섭 작가 단편소설을 영화화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10월 28일 목요일에는 영국 노팅엄을 배경으로 다양한 문화와 음식의 향연을 보여주는 '세상의 모든 디저트 : 러브사라'가 준비되어 있다.

7월 관람신청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7월 19일 오전9시부터 선착순 100명까지 사전예약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예약자들에게는 상영전일 영화관람 링크



를 문자로 별도안내 예정이며, 영화는 24시간 내 관람가능하다. 배려순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서울역사박물관 배리어프리영화관을 통

해 장애인·비장애인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군산시, 연주자와 관객이 가장 가까운 거리 문화가 있는 날 - 하우스 콘서트

피아노 3중주부터 퓨전 국악까지 다양한 연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

군산예술의전당이 진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 「하우스 콘서트」가 매달 다른 장르의 공연을 제공해 입소문을 타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하우스 콘서트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는 공간에서 연주자와 관객이 하나 되는 공연으로 연주자에게는 관객의 호응과 시선을, 관객에게는 연주자의 작은 목소리와 탐방울까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올해에는 4회(6.30, 7.28, 9.29, 10.27)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공연된다.

지난 6월에는 해외에서 실내악으로 오랜 시간 인정받은 연주팀 「트리오 콘 스피리토」의 연주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완벽한 하모니를 선사했다. 이달에는 젊은 두 명의 클래식 기타리스트 김진세 & 박지형 듀오의 공연을 준비하며 무더위를 날릴 예정이다.

김승일기자

오는 9월 공연에는 현재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차세대 비올리스트 이한나의 무대로 깊어가는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릴 무대를 꾸민다. 또 10월에는 해금&기타&클라리넷의 이색조합의 공연을 마련해 전통과 크로스 오버를 넘나들며 한국적 서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하우스 콘서트는 웅장하고 큰 무대와는 달리 아기가 하면서도 섬세한 음악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매력적인 공연으로 많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음악을 선보여 장르 지변 확대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티켓예매는 공연 2주 전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경남문화예술회관, 연극 코리올라누스 호평 일색에 공연 기대감 상승!

셰익스피어 스페셜리스트 양정웅 연출... 5년 만의 연극 복귀작

경남문화예술회관이 LG아트센터와 공동제작한 연극 코리올라누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연극 코리올라누스는 지난 3일 서울 LG아트센터 초연 이후, 관객과 평단의 관심은 물론 언론의 호평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월 20일 저녁 7시 30분과 21일 오후 3시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양일 개최될 예정이다.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비극, 코리올라누스는 혈혈단신으로 도시를 함락시켜 로마를 구한 장군 '코리올라누스'가 최고 권력인 집정관 자리에서 오르지만, 그를 시기한 음모와 민중의 외면으로 로마에서 추방당하면서 뒤따르는 배신과 복수를 그린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총 연출을 맡았던 양정웅이 5년 만에 선택한 연극 복귀작이다.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도 주목받는 연출가다. 셰익스피어 원작을 동양적으로 직접 각색, 연출한 한여름 밤의 꿈은 한국 연극 사상 최초로 영국 런던 '비비칸 센터'에서 공연되었고, 2012 런던 올림픽 기념으로 기획된 셰익스피어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셰익스피어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글로벌 극장'에도 올랐다. 또한, LG아트센터가 제작한 연극 페르킨트로 2009년 대한민국연극대상 대상 및 연출상을 수상하였고, 2017년에는 도쿄 세타가야 퍼블릭 씨어터 버전으로 페르킨트를 공연하여 JAPAN TIMES에서 선정한 '올해의 베스트 6'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코리올라누스에서는 2009년 페르킨트로 대한민국연극대상의 영광을 함께 만들었던 임일진 무대미술가와 '범 내려온다'로 전곡을 감타한 이남치밴드의 리더 장영규 음악감독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창작진들이 대거 합류해 작품의 완성도를 더한다. 여기에 한국인 배우 최초

로 영국왕립연극학교를 졸업한 남윤호가 '코리올라누스' 역으로 분해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경남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차가운 흑백 무대를 바탕으로, 한순간에 반역자로 추락한 광기 어린 영웅의 모습과 각자의 입장과 욕망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인간군상의 압도적 에너지를 기대해도 좋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손소독과 발열확인,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코리올라누스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광용기자

나주시, 시민오케스트라 올해 첫 공연 '클래식 IN 무비'

17일 오후 7시 반부터 빛가람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나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야외 오케스트라 공연을 연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부터 빛가람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2021년 시민오케스트라 공연 프로젝트' 정기 공연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민오케스트라 공연프로젝트는 지난 2019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한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의 생활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선정에 힘입어 지난 2년 간 추진해왔다.

오케스트라 구성은 악기 연주와 음악을 사랑하는 시민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이뤄진다. 현재 활동 인원 수는 지난 4월 신입단원 모집 단원을 더해 총 40명이다.

작년까지 총 4회에 걸친 정기공연으로 감동과 치유, 소통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며 시민의 문화행복지수를 높이고 일상 속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공동체를 구현해왔다.

올해 첫 정기 공연에 나서는 시민오케스트라는 '클래식 IN 무비'(Classic in movie)를 주제로 명작

애니메이션, 영화에 삽입된 OST와 K-POP 등 8곡 합주 무대를 선보인다.

공연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해 마스크 착용, 객석 간 거리두기, 손 소독 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된다. 우천 시에는 같은 시간 문화예술회관에서 실내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입 단원으로 활동 중인 공공기관 임직원 A씨는 "직장과 함께 나주로 내려온 후 한 동안 마음 붙일 곳 없이 외로웠었는데 매주 토요일 정기 연습을 통해 이웃과 친구를 사귀게 됐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모로 힘든 주민들이 공연을 보면서 지친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시민오케스트라는 누구도 소외 없이 일상 가까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행복도시 나주의 원동력"이라며 "아름다운 선율로 행복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할 단원들과 예술감독, 지휘자들의 열정과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문경시 색다른 코드의 코믹반전스릴러, 연극 '그녀가 산다' 온라인 공연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문경시가 주관하는 연극 "그녀가 산다" 공연이 7월 29일 19:30분 유튜브 채널명 '문경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간 생중계된다. 연극 '그녀가 산다'는 평범한 단심과 츠네데 남친 일편의의 첫 만남부터 이후 진지한 만남이 지속되는 과정과 그 속에 매력 넘치는 단심의 주변 인물들과 일편의 밀고 당기는 신경전, 그리고 이웃들의 무관심할 줄 알았던 이웃들의 관심으로 인한 극적인 사건의 반전

까지 각각의 캐릭터와 구성이 잘 어우러진 코믹반전스릴러 연극이다.

일편 역에 유규현, 단심 역 박인경, 멀티 역 이창건, 누군가 역에는 이지민이 출연 한다. 백설매 문화예술회관장은 "이번 공연은 코믹과 스릴러적인 요소에 드라마적인 부분까지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관객을 맞이하려한다. 비대면이지만 웃음과 재미로 관객들에게는 올 여름 무더위를 한방에 날려 버릴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청년이 일하고 싶은 도시 안양시, 일자리창출 '대상' 수상

최대호 안양시장,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자 행복...청년 일자리창출에 더욱 주력할 것

안양시가 지난해 취업 성과를 인정받아 「2021 제2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에서 일자리창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기현 원장과 김충환 심사위원장 등 관계자 4명이 방문하여 안양시청 3층에서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개최됐다.

이번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2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1996년부터 제정된 권위 있는 시상으로 공적 서류심사, 인터뷰 심사, 주민만족도 조사 등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안양시가 일자리창출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얻게 됐다.

안양시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31,24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 13.5%나 더 늘어난 수치다.

기준과 같은 채용행사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전국에선 처음으로 온-오프믹스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구인기업과 구직자들의 호응을 샀다. 청년창업펀드 921억 원을 조성한 가운데 청년 100개 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하기관의 청년 의무 채용비율을 3%에서 8%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가 하면, 153개의 공공일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중앙청에 대해서는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설립 및 활용을 통해 630여명이 취업에 골인했다. 지난 6월에는 베이비부머센터 공동창업아카데미 수료 창업 1호점이 문을 열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청년과 중장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성과가 이번 시상평가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는 요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이자 행복이다."

특히 청년층이 일하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힘을 쏟고자 한다."고 전했다.

최정근/기자

경북도, 도민이 필요한 예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제6기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위원 위촉

경상북도는 2022년도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하고, 15일 오전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새로이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 6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한 위원들은 도정전반 6개 분야 모두 60명으로 전 시군의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시·군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하고 지역별·연령별·성별·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1년 간 도민들이 도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직접 상시 제안한 사업을 심사하여 예산반영 우선순위를 결정 등의 활동으로 도 재정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식은 추진경과 보고, 위촉장 수여 및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상징하는 조형물 완성 퍼포먼스, 도지사의 격려말씀,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

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란 주제의 윤성일 박사(지방행정연구원 소속) 강의를 끝으로 마무리 하였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된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매년 일자리창출 사업, 문화예술사업, 지역개발사업, 농어촌진흥사업 등 도정전반에 걸쳐 2,000여억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총 7,000억 원 정도의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그동안 도민들의 인식,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위원회 중심으로만 운영해 온 경향이 있었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도 변화하고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기 살리기 사업, 4차 산업혁명 선도사업 발굴 등 경북의 현재와 미래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의견과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세기/기자

강원도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

'사고팔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거점 센터 조성

강원도는 7월 15일 15:00, 화천 토고미마을(정보센터)에서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인 '사고팔고'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자, 강원도는 온라인 접근 기반이 취약한 도 내 소상공인이 쉽게 전자상거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를 출시했다.

강원도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 상점을 개설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고팔고'는, 3년 간 강원도 내 3,000개의 온라인 상점 신규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도가 실현하는 '사고팔고'는,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①간편 쇼핑몰 개설 : 스마트폰 만으로도 판매자는 상품 사진을 찍고, 바로 온라인 상점에 등록 가능 ②간편 결제 : 카드, 무통장 입금뿐만 아니라, 카톡 등 SNS를 통해 쉽게 구매 결제 가능 ③간편 픽업 : 택배뿐만 아니라, 상품을 온라인 주문하고 현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기능 탑재 ④무료 서비스 : 가입비, 중개수수료, 사용료가 모두 무료로 판매자 부담 최소화 이용자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이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사고팔고"를 검색하면 '사고팔고 지원포털'을 확인할 수 있고, 강원도민 누구나 간편하게 가입하여, 전화 상담 등 '원-스톱(One-Stop)' 밀착 지원을 통한 쉽고 간편한 온라인 상점

을 개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강원도는,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인 '사고팔고'의 활성화와 운영 지원을 위해, 먼저, 사고팔고 지원포털에 가입하여 쇼핑몰을 개설하면, SMS 발송, QR 홍보물, 택배비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15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가입비와 중개수수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쇼핑몰 개설에 부담을 느낄 지원포털 가입자의 자립화를 위한 강원도의 고민이 담긴 혜택이다.

그리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사고팔고' 지원포털 가입자를 위한 교육 강사를 육성, 온라인 상점 운영이 처음이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사고팔고'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입자에게 전화 교육 및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진행 한다.

교육 장소는 농어촌 등 어느 곳이든 가능하고, 장소 마련이 어려운 경우 에듀버스(Edubus)를 통해 이동형 교육 장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서비스 모델 확장으로 경제적 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거점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기존 정보화마을을 활용한 지역별 전자상거래 거점 센터를 조성 한다.

전자상거래 거점 센터는 농·특산물 상품 콘텐츠 개발, 주문 상품 취합 및 배송, 전자상거래 플랫폼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 지역 활성화 및

영세 소상공인의 힘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 최문순 화천군수, 김기욱 (㈜코리아센터 대표, 김주홍 강원도경제진흥원장, 한두삼 강원상인연합회장, 김성완 강원도정보화마을협의회장 등이 참석,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의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도 같이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b 도민 중심의 맞춤형 '사고팔고' 운영 보급 지원 b 주민 밀착형 전자상거래 거점 센터 조성 등 지속관리

b '사고팔고' 운영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b '사고팔고'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등에 대하여 강원도 등 6개 기관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는 온라인 접근 기반이 취약한 도내 농어민 및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진입과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디지털경제 확대에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준비한 사업이다."

한 여름에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요즘,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가 도민 개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답답한 강원경제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전남도, 여름 가금육 소비 성수기 도축장 운영 확대

전남동물위생시험소, 조기 개장...휴일 운영...위생도 강화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닭·오리고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8월 말까지 가금류 도축장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높은 온도에 취약한 닭·오리의 도축 전 폐사를 막기 위해 도축장 개장 시간을 1시간 이상 앞당긴다. 평소보다 늘어날 주말 도축 물량을 감안해 일부 가금류 도축장은 토요일 등 휴일에도 운영한다.

또한 식육의 세균, 잔류물질 검사 등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방침이다. 더운 여름철 도축 과정에서 발생할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축장에서 생산한 식육을 대상으로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 등 세균과 잔류 항생제를 검사한다.

도축장 위생 환경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HACCP 관련 미생물검사도 지속적으로 한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도축한 가금류는 1억여 마리다. 이 가운데 30%인 3천12만 5천 마리가 성수기인 6~8월에 집중했다.

이용보 전남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닭·오리고기 소비 최대 성수기인 여름철을 맞아 축산물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도축장 운영을 확대했다"며 "소비자가 전남산 축산물을 마음 편히 구매하도록 축산물 검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전북도, 경제혁신 주역 '창업꿈나무 발대식' 개최

창업동아리 20팀 대상, 청년창업 및 클라우드 펀딩 특강 진행

전라북도도가 창업에 관심있는 도내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경제혁신을 주도하는 청년 창업가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전북도는 15일 전주대학교에서 '2021년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사업'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청년 창업가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전주대학교 관계자와 4명의 멘토단, 올해 선정된 창업동아리 20팀중 6팀(고등부 1팀, 대학부 5팀)은 행사현장에 참석했다. 나머지 창업동아리 14팀은 비대면(ZOOM)으로 함께했다.

발대식에 이어 ㈜아이로드 유지근 대표의 클라우드 펀딩 성공사례와 ㈜다르코리아 김진한 대표의 학생 창업 성공사례 등 기업가정신 특강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창업동아리 학생과 선배창업 기업간 비대면 토크 콘서트, 참여 동아리 오리엔테이션 등도 진행했다.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은 전라북도가 2015년부터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도내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20팀의 창업동아리를 발굴하여 미래의 청년창업가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지원, 시제품 제작, 시장조사 등의 체계적 창업 전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승일/기자



'충남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국비 전폭 지원 요청

충남도가 민항 건설 등 도내 최대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양승조 지사와 간부공무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강홍선 도당위원장, 김영호 비서실장, 이용빈 대변인, 민병덕 조직사무부총장, 이정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충남 최대 현안이자 풀어야 할 숙원으로 크게 다섯 가지를 건의했다.

주요 현안을 살펴보면 ▲충남 민항 건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가로림만 국도38호선 해상교량 건설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KBS 방송국 설립 등이다.

도는 이 중 충남민항을 최대 현안으로 제시했다.

서산시 해미공군 제20전투비행단 비행장에 민항을 건설하면 대규모

개발도 필요치 않아 환경적인 피해도 적을 뿐만 아니라 타 공항에 비해 비용도 절감된다.

실제 도는 공항 진입로를 농어촌 도로에서 연결할 경우 45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공항 7796억 원, 울릉도공항 6651억 원에 비해 10분의 1 이하 수준이다.

양 지사는 "서해안과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충남민항 건설은 필수불가결하다"며 "환황해 시대, 충남의 비상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충남민항 건설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대해서도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해양생태계 보전의 새로운 모델로서 지역민과 상생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지속가능한 어촌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이 될 가로림만 국도 38호선 해상교량 건설에도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충남은 16년 만에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9개월이 흐른 지금,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여당에서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끝으로 KBS 방송국 설립과 관련해서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총 18개의 KBS지역 방송국이 있지만, 충남에는 없다"며 "도민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지역 방송문화의 향상을 위해 방송국 설립이 확정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도는 이날 22개의 지역현안과 더불어 '2022년 정부예산 확보 필요 주요 사업'으로 삼교역 신설을 비롯한 전기차 배터리 제조용 산업화 기반 구축, 당진형 종합발전전략 수립

등 20건을 여당에 전달했다.

한편, 도는 협의회를 마치고 서산시 대산읍 황금산 인근의 가로림만 현장으로 이동한 당 지도부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과 '가로림만 국도38호선 해상교량 건설'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고정화/기자



영양 들어다보기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 O O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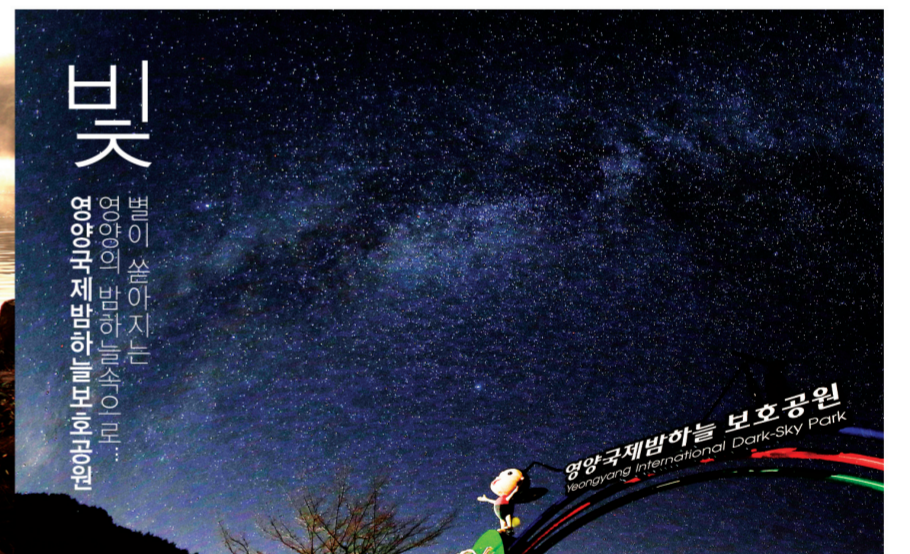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길
살과 숨이 통에서
하디면 으메르디...
외씨버전게 쫄고나진



물
영양의 푸른하와
승메르디에에 건기...
쫄고나 쫄고나



빛
별이 쏟아지던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쫄고나 쫄고나 쫄고나



음
시몬의 대가
쫄고나 쫄고나 쫄고나 쫄고나



맛
사백년들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쫄고나 쫄고나



숲
한국의 서가정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전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